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신하님 아버지, 아버지 주일을 맞아 아버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흘러 나오는 진정한 부모사랑의 의미를 잘 새겨서 자녀사랑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녀들이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1-3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5년 5월 2일 (토) 제 1531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세상의 모든 어머니... “고맙습니다!”

#### ‘2015 어버이주일 맞아 부모의 사랑과 헌신 기리는 뜻깊은 날로트 보도

어머니는 주기만 하는 삶을 살고 자식은 받기만 하는 인생을 산다. 저마다 가슴에 저마다 사연으로 어머니는 있다. 언제 어디서 떠올려도 가슴이 아릿해지는 이름이 어머니다. 내 인생을 만들어주었다는 것만큼, 내 인생을 위해 어머니 자신의 열정과 삶 전체를 쏟아 부었다는 것에 대한 고마움으로 돌아보게 하는 이름이다. 가난하고 궁핍의 강을 건너는 인생의 집에서 하늘 한번 편히 바라볼 시간 없이 살아온 어머니가 있다. 가족을 위해 살을 버리고, 자식을 위해 취미를 버리고, 모자라는 밥을 혼자 굶는 것으로 감당하면서 견뎌온 어머니가 있다.

자세한 사정을 모르고 버럭 소리만 지르는 아버지대신 어머니는 화장기 없는 부스스한 얼굴로 항상 기도와 찬송으로, 공부 하러 떠난 자식들의 얼굴을 그리며 하나님께 맡긴다.

어버이주일은 우리의 불효를 깊이 후회하게 만든다. 처음으로 어머니의 삶을 돌아보게 된 사람도 있고, 이미 과거에 알았지만 제대로 어머니께 해드리지 못하는 불효자식이기 때문에 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생각으로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다.

어머니라는 이름에는 눈물이 숨어있다. 이민자로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가만히 불러 보지만 해도 눈물이 먼저 흐른다. 그만큼 어머니는 자식에게 베풀다가 걱정이란 남아서 한없이 가벼워지는 존재다.

세상의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절대적인 존재다. 내 엄마가 남보다 잘나서 엄마가 아니다. 내 엄마가 남보다 많이 배워서 엄마가 아니다. 엄마라는 이름에는 신비스러운 면이 있다. 덜 배우고 힘없는 엄마에게서 더 큰 힘이 나오는 걸 너무 많이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랑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어머니를 통해 배우고 익히게 된다. 바로 가슴으로 하는 것이다. 그만큼 가슴의 온도가 뜨거운 사람은 다른 소소한 부족함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모든 자식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을 어머니에게서 배운다. 생명을 받아서 태어나 가장 먼저 한 일이 어머니의 젖을 빠는 일이었다. 어머니는 생명줄이었다. 세상을 사는 방법도 어머니에게서 영향을 받는다. 어머니의 말과 행동에서 자식은 배우고 익힌다.

사람들은 성장하면서, 자신들도 자식들을 낳아서 키우다 보면, 자식을 위하여 눈물을 참고, 힘든 일을 하면서 투정 한번 부릴 수 없는 어머니는 가없는 존재임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어머니가 살아있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는 것은 자식의 도리가 아님을 알게 된다. 더 나아가



가서 어머니는 대우받아야 하고 누구보다도 먼저 존경 받아야 하는 존재였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여자로 태어나서 어머니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분명 힘들고 아픈 과정을 거쳐야 하는 지난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현대 자식이란 짐을 짊어지면서 살아가는 힘을 가지게 된다. 짊어진 짐이 생명을 가져서 자라나면서 더 무거운 짐이 되는 특성이 있다.

그럼에도, 모든 기쁨을 자식에게 거는 어머니라는 이름에 거룩함이 보인다. 어머니라는 이름은 참 아름다운 이름임이 틀림없다. 짐을 내려놓을 때가 되면, 어머니는 늙어 힘을 잃어버리고 만다. 하루

를 마무리하고 떠나가면서 불현 서쪽 하늘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노을처럼,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식에게 등불이 돼주는 존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부모의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게 만들었고, 자신들의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가차 없이 부모를 향해 손가락질을 한다. 남들은 이것저것 다 해주는데 우리 부모는 그렇지 못하다면서 치욕적인 말까지 내뱉는다. 부모의 입장에서 참으로 억장이 무너지는 순간이다. 힘들게 낳아 행여나 다칠까봐 정성 들여 키웠건만 돌아오는 것은 멸시의 눈빛뿐이다. (3면으로 계속)

### “신뢰할 수 있는” 대통령 원한다!

#### 미 언론, ‘클린턴 대세론’ 위협하는 힐러리의 거짓말과 부정직 집중 조명

‘클린턴 대세론’.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다. 지금 당장 대선에 치러진다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당선은 ‘떼어 놓은 당상’일 정도로 클린턴 대세론은 위력적이다. 민주당 내 반대 세력조차도 “세울 수 없는 기차”라고 할 정도다. 지난 4월 15일, 현재 당내 지지 의원만 89명, 2008년 대선 경선에서 최종적으로 확보한 93명에 육박한다. 하지만 새 역사를 쓰기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여전히 많다. 무엇보다도 민주당 대선 후보를 결정할 전당대회까지는 15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남아 있다. 마지막 승리의 순간까지 ‘클린턴 대세론’이 유지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다.

힐러리 클린턴은 무엇보다도 “평범한 미국인의 대변자”를 자처한 것과 정반대로 살아온 삶이 최대 약점으로 꼽힌다. 또 대통령 취임 시 나이가 70세에 이르는 고령이라는 점도 걸림돌이다. 따라서 차기 대선주자로서 클린턴은 ‘부정직’하다는 꼬리표까지 얻어, 이를 과연 그녀가 극복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된다.

결국 미 언론은 힐러리가 두 번째 대선 도전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고 예측하고 있다.



대선 출마선언 후, 클린턴이 대선 대장정의 첫 목적지로 아이오와주를 선택했다. 아이오와주는 대선이 치러지는 해 1월 민주·공화 양당의 코커스(당원대회)가 열리는 곳이다. 아이오와 코커스는 향후 대선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첫 관문으로서 흔히 ‘대선 풍향계’로 불린다. 8년 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클린턴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패배했다. 그런 곳을 처음으로 방문하는 것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아이오와주로 가는 길에 클린턴은 도로 변에 있는 작은 식당에서 직접 음식을 주문하고 날랐다고 한다. 종업원조차 그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낮은 자세로 임했다. 이 같은 서민 행보는 8년 전과 가장 달라진 모습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힐러리는 대다수 미국인은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누리며 살고 있어왔기 때문이다. 이는 비밀감찰국의 보호와 충성스러운 참모진의 비호를 받고 있으며, 전세기와 기사 딸린 차에 익숙해져 있다는 의미다. 백악관을 떠난 이후 그녀와 클린턴 전 대통령은 책 인세와 강연료로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지난해 그녀는 1996년 이후 직접 운전한 적이 없다고 시인했다.

최근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생계형 고액 강연’ 발언의 역풍은 단적인 실례다. 2001년 남편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날 때 완전히 파산해 무일푼이었음을 강조하기 위해 “가계 수지를 맞추려고 20만-50만 달러짜리 강연을 해야 했다”고 한 발언이었다. (3면으로 계속)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기독교상담학 석사과정 개설”

원격교육의 특징

1. 학사(BABS/BACC), 석사(MAT/M.Div/MACC) 정규학위 취득
2. 미국 주류 기독교 대학과 대학원 학점인정 및 편·입학
3. 목회학 석사과정 이수 후 미군 군목 장교로 지원
4. 연방정부 학비 지원, 선교사 장학금, 목회자 장학금, 부부 장학금

미국 대학과 인준기관

ABHE 정회원 ATS 정회원 TRACS 정회원

500 Shatto Place, Suite 600, Los Angeles, CA 90020  
www.wmu.edu / admissions@wmu.edu (213) 388-1855

AMERICA'S MOST BIBLE-THINKING CITIES 2015

2면 샌프란시스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도시!

7면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이... 조진모 목사

8면 회중을 예배에 몰입하게 하라!

16면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 “질”이 문제다!

## 네팔 지진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구호에 동참해 주십시오!

국제기아대책 긴급구호팀(Emergency Relief Unit)은 지진 피해로 가족과 집을 잃고 길에서 생존의 위협 속에 고통 받고 있는 네팔 난민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손길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긴급구호 헌금을 보내실 곳**  
**KAFHI**  
411 Kingston Ct.  
Mount Prospect, IL 60056  
(memo: 네팔 긴급구호)

국제기아대책 미주한인본부  
(Korean American Food for the hungry International/ KAFHI)  
KAFHI 411 Kingston Ct., Mt Prospect, IL 60056, 847-298-4565, 703-473-4696  
LA 사무소: 10701 Holder St, Cypress, CA 90630 www.fh.org, kafhi@fh.org, shchung@fh.org



시론

교회는 무풍지대가 아니다



민경엽 목사 (오렌지 카운티 나침반교회)

이단이란 끝이 다른 것이다. 정통교회 하고 같이 보이는데 끝만 살짝 다른 것이다. 그러나 실상 끝만 다른 것이 아니라 본질 자체가 다른 것이다. 같이 보일 뿐이다. 정통교회는 천국으로 이끈다면 이단은 지옥의 아랫목으로 인도하니 본질상 다르다. 끝만 살짝 다르게 보일 뿐이다. 얼핏 보면 그게 그거 같다. 사실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의 세력은 준동하였다. 그래서 대부분의 서신서는 이단의 폐해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 써졌다. 이 단세력에 의해 순교당한 탁명한 목사는 이 단마다 다 다른 강조점이 있지만 모든 이단

의 공통점은 정통전리와 반대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통전리의 일부를 전부인 것처럼 확대 해석하거나 전부라고 주장한다고 하였다.

얼마 전 신천지라는 이단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한국에서 방송되었다는 동영상 보였다. 신천지는 반사회적이고 비도덕적이어서 이런 이단이 한국에서 생겼다는 자체가 참 부끄러웠다. 신천지에 미혹되면 말쑥하던 사람이 폐인처럼 되어 하던 공부도 하지 않는가 하면 직장도 가족도 버리고 반정신병자처럼 된다. 가족들은 신천지에 빠진 한 사람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신천지에 속았던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 모두가 신천지로 인해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를 하소연한다. 일단 신천지에 빠지면 교주와 그를 옹호하는 자들의 속임수에 넘어가 가족도 버릴 수 있고 신천지에 반대하면 부모도 사탄 마귀가 된다. 그리고 자신이 이단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을 즈음에는 거의 자포자기 상태가 되어 빠져나오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신천지가 악한 것은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는 이들에게보다는 기존의 교인들을 주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그것도 여러속하고 아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뭔가 기성교회들과 기성세대에 대해 불만을 가진 젊은이들을 주 공략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주로 구원의 확신이 약한 사람이나 성경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우선적인 타겟이다. 특별히 신천지는 사람들을 포섭하기 위해 온갖 거짓말을 동원하는 것을 주요 전략으로 내세우는 것을 보면 미혹의 영,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교회는 무풍지대가 아니다. 즉 교회에 있으면, 교회에 다니면 그냥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에베소교회가 앞으로 겪을 어려움들을 예고하며 조심할 것을 신신당부하였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되는 말씀이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 떼를 아끼지 아니하며"(행20:29). 외부로부터 사나운 이리떼의 공격이 있을 거라는 말이다. 그들은 양 떼를 아끼지 않는다. 오늘 온갖 이단들이 그런 세력이며 동시에 안티기독교 세력과 IS를 중심으로 한 이슬람 세력이 그들이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아노라"(행20:30). 이게 무슨 말인가? 교회 내부에서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교회 밖의 세력보다 안의 세력에게 더욱 유혹당하기 쉽다. 적인지 아군인지 분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천지의 전략도 그렇다. 그러므로 교회 안팎에서 교인들은 공격을 당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단에 대한 대응전략은 무엇인가? 이단은 기성교회가 병들었을 때 특히 기승을 부린다. 그러므로 교회가 건강해져야 한다. 교회는 언제 건강해지는가? 무엇보다 강단에서 올바르게 된 복음이 선포될 때 건강해진다. 적극적 사교방식이나 변영복음이나 은사주의니 하는 것들이 그 폐해가 드러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진 진짜 복음(The Radical Gospel)을 증거해야 한다. 예수만이 채울 수 있는 성도들의 텅빈 가슴에 예수 외의 다른 것을 주었기에 바닷물 한가운데서 목마른 것처럼 기갈에 걸린 것이 아니겠는가. 또 한 가지, 나를 포함해서 목회자들이 거룩함을 회복해야 교회가 건강해진다. 그 동영상의 마지막 편에 고 옥환을 목사가 거의 생애 마지막에 절규하듯이 외친 설교가 나온다. 평생 교회의 99%를 차지하는 평신도를 깨우기 위해 살다간 그는 한국교회의 건강성은 1%가 안 되는 목회자들에게 달려 있다고 하였다. 목회자가 돈 좋아하는데 교인들이 돈을 좋아하지 않겠는가. 목회자가 명예를 좋아하는데 교인들이 어찌 세상 명예를 좋아하지 않겠는가 라고 강하게 질타하였다. 적어도 목회자만이 라도 참되며 경건하며 옹오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할 때 교회는 건강해질 것이다. 그러면 적어도 교인들이 이단의 핏에 넘어가지 않는 토양은 마련될 것이다. 주여, 제 2의 영적인 대각성을 주옵소서!

샌프란시스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도시!

바나리서치, 미 전역에서 100대 도시 설문조사 결과 통해 보도

전통적으로 지구촌에서 미국은 종교적인 국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주일 교회 출석은 보통 미국인들의 정상적인 삶이었다. 그러나 과연 오늘날까지도 그러한가? 다시 말해서 정기적 교회 출석이 미국적 삶을 구성하는데 있어 여전히 주요한 특성이 되고 있는가? 이 질문의 답은 의문을 갖게 한다.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미국인들이 주일마다 교회에 출석한다. 전국적으로 5명의 미국인 중 2명 즉 42%가 "매우 적극적인 교인"들이다. 다시 말해서, 매주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42%는 상당한 수치다. 그러나 이 수치는 지난 6개월 동안 교회를 한 번도 가지 않은 미국인

들 (Churchless, 38%)에 비해 불과 4%밖에 높지 않은 수치다. 그렇다면 미 전국적으로, 지역별로 그리고 도시 별로 교회 출석 현황은 어떠한가? 바나리서치는 설문을 통해, 미국에서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100대 도시들과 그렇지 않은 100대 도시들을 밝혀준다 (Top-100 Church and Churchless Cities in America).

이번 설문은 지난 7년 동안 미 전역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성인 60,808명을 상대로 전화와 온라인 설문 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로, 신뢰도 95%에 오차율 +/-0.4%다.

교회 잘 나가는 도시 vs 그렇지 않은 도시

교회 출석률은 도시와 도시마다, 그리고 지역과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여준다. 많은 도시들에서 평균 이상의 교회 출석률을 보여주고 있고, 인상 깊은 사실은 바로 미국에서 가장 큰 메트로폴리탄 지역들 중 2/3가 평균 이상의 교회 출석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남부 지역과 소위 "바이블 벨트"에서의 교회 출석률은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테네시, 차타노가는 주단위로 성인 중 2/3 즉 63%가 적극적인 교인들로 매 주일 교회에 출석하고 있을 정도이다. 반면에, 샌프란시스코 메트로 지역은 미국에서 가장 교회에 다니지 않는 도시 중의 1번 주자로, 지난 6개월 동안 공휴일이나 결혼이나 장

를 떠난 사람들이었고, 9%는 한 번도 교회에 가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미국 인구 중 38%가



- 16%)
- 3. New York, NY (15%)
- 4. Harlingen-Weslaco-Brownsville-McAllen, TX (15%)
- 5. Chico-Redding, CA (15%)

그러나 동시에 동 지역은 교회에 다녀오나 이제는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첫 번째 도시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고, 다음은 그 다음 탐 4도시들이다:

- 2. Seattle-Tacoma, WA (44%)
- 3. Portland-Auburn, ME (43%)
- 4. Boston-Manchester, MA (42%)
- 5. Albany-Schenectady-Troy, NY (41%)

결국 샌프란시스코 하면 "금문교"나 "차이나타운"이 연상되지만, 이제는 미국에서 가장 비기독교적인 도시라는 낙인을 하나 더 받게 됐다.

TOP TEN CHURCHED CITIES IN AMERICA

1.	CHATTANOOGA, TN	63%
2.	BATON ROUGE, LA	62%
3.	SALT LAKE CITY, UT	60%
4.	BIRMINGHAM, AL	60%
5.	AUGUSTA-AIKEN, GA	60%
6.	GREENVILLE-SPARTANBURG-ANDERSON, SC	57%
7.	PADUCAH, KY-CAPE GIRARDEAU, MO-HARRISBURG-MT. VERNON, IL	56%
8.	GREENSBORO-HIGH POINT-WINSTON-SALEM, NC	55%
9.	MYRTLE BEACH-FLORENCE, SC	55%
10.	MONTGOMERY-SELMA, AL	55%

래와 같은 특별한 경우를 불구하고, 10명의 성인 중 6명 즉 61%가 교회와는 답을 싹고 살아가는 지역이다.

바나리서치는 이번 설문에서 단지 교회에 다니지 않는 미국인들만을 조사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예전에는 교회에 다녀오나 지난 6개월 동안 교회에 가지 않은 "교회를 떠난 사람들 (dechurching)"과 "살면서 이제까지 한 번도 교회에 다녀보지 않은 사람들 (never-churched)"이 얼마나 되는 지까지 조사했다. 그 결과 미 전체 인구 중 29%가 교회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비판적인 결론을 얻게 됐다.

샌프란시스코는 교회를 가지 않는 1번째 도시지만, 한 번도 교회에 다녀보지 않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도시들로는 6번째를 자리 잡고 있다. 다음은 교회를 한 번도 나가지 않은 도시들 탐 4도시다:

- 1. West Palm Beach-Ft. Pierce, FL (17%)
- 2. Santa Barbara-Santa Maria-San Luis Obispo, CA

TOP TEN CHURCHLESS CITIES IN AMERICA

1.	SAN FRANCISCO-OAKLAND-SAN JOSE, CA	61%
2.	BURLINGTON-PLATTSBURGH, VT	55%
3.	BOSTON-MANCHESTER, MA	53%
4.	PORTLAND-AUBURN, ME	52%
5.	CHICO-REDDING, CA	52%
6.	LAS VEGAS, NV	51%
7.	SEATTLE-TACOMA, WA	50%
8.	ALBANY-SCHENECTADY-TROY, NY	50%
9.	PHOENIX-PRESCOTT, AZ	49%
10.	NEW YORK, NY	48%

미주크리스천신문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The Korean Christian Press ■ 편집국장서리:유원정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 la@chpress.net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 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 표)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http://www.midwest.edu)

본교는 미국대학학력인가기관(CHEA), 미연방정부교육부(USED), ABHE로부터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을 인가받은 대학교입니다.

**2015년 봄학기 박사과정 특강안내**

- ▶ 4월 특강 (April 20-24, 2015)  
CC 843 Current Issues in Counseling and Psychology  
Dr. Jong Cheon Lee
- ▶ 6월 특강 (June 9-11, 2015)  
CM 827 Church Music and Literature  
Dr. Dae Gweon Kim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ESL Program**
- Bachelor Degree Programs**  
BA in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  
BA in Music 음악학  
BA in Theology 신학, 기독교교육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 Master Degree Programs**  
MA in Counseling 상담학석사  
MA in Education 교육학석사  
MA in Music 음악학석사  
MA in TESOL 영어교육석사  
M.Div 신학석사
-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inistry 목회학박사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Doctor of Music 음악박사  
Doctor of Leadership 리더십박사

문의: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Fax: (571)730-4751  
E-mail: wdc@midwest.edu

### “신뢰할 수 있는” 대통령 원한다!

(1면에서 계속)  
클린턴 전 장관은 이틀날 바로 “많은 미국인이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는지 전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수습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클린턴 전 장관이 2008년 대선후보 경선 이후 줄곧 대중과 떨어져있었다 보니 현실감각이 무뎠다고 분석한다. 오바마 대통령 정부의 1기 4년간 국무장관으로서 112개국을 방문하는 160만km의 여정은 모두 전용 비행기로 이뤄졌다. 지난해 2월 국무부를 떠난 이후에는 개인 제트기를 타고 다녔다. 미국 정치에서 재산 규모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서민과 공감하는 자세는 정치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다.

결국 CBS는 미국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그녀의 개인 이메일 사용에 대한 설문지를 보냈다. 그 결과, 응답자의 62%는 이것이 부적절한 처사였다고 답했다. 이 때문에 응답자의 29%는 인식이 더 나빠졌다고 답한 반면, 좋아졌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특히 공화당 지지층이 이를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공화당 지지층 응답자의 49%가 이번 사건으로 힐러리 전 장관에 대한 인식이 나빠졌다고 답했다. 무당파 29%도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했다고 답했다.  
정치학자들이나 미 언론은 이때까지 “클린턴식 거짓말(벤벤한 거짓말을 수줍은 듯이 하면 듣는 사람들은 거짓말인 줄 뻔히 알면서도 속아 넘어가주는 것)”은 클린턴 부부라는 한

이다.  
이 신문은 원칙대로라면 CHAI는 2011년과 2012년 스위스의 한 기업으로부터 34만 달러의 기부금을 받을 때 자세한 사항을 국무부에 통보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한 르완다정부도 2012년 20만 달러를 기부했지만 CHAI는 당시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마우라 데일리 CHAI 대변인은 “2010년과 2013년 사이 명단을 공개 못한 것이 사실이며 그동안 공개하지 않은 명단을 올해 다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최근 공개된 CHAI 기부자 명단도 논란을 잠재우기 어려워 보인다. 모든 기부자를 공개한 것이 아니라 거액 기부자를 제외한 총 기부금액이 100만 달러뿐인 안되는 ‘개인적 기부’ 명단만 공개했기 때문이다.  
한편 백악관은 이 같은 사실

반면, 리더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앞섰다. 57%가 힐러리 전 장관이 강한 리더십을 보여준다고 답했다. 38%만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다.  
결론으로, 힐러리가 대선 출마선언 후, 가장 먼저 찾은 아이오와 주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공화당 예비주자들의 모임(Iowa's Faith & Freedom Coalition Summit)에서, 계속 회자되고 있는 점성도 그녀의 부정직성이다.  
보수적인 공화당 성향의 평범한 유권자들이지만 공화당원들의 눈에 비친 힐러리는 한마디로 “신뢰할 수 없는 정치인”이다. 물론 그녀의 이미지, 정치적 업적 등은 인정할 수 있지만, 미국의 미래가 능력이냐고도의 정치적 스킬이 아닌, 바로 대통령의 덕목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힐러리보다는 “엘리자베스 워렌(Elizabeth Warren)

### “진보적 방식의 거짓말” 타협적·기업 친화적 무늬 우려 엘리자베스 워렌 매사추세츠 상원의원 “사람들 대표” 인식

게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그녀의 “정직성”이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이미 “클린턴식 거짓말은 항상 통한다”는 관례가 만들어질 정도로, 그녀의 말은 항상 변한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꼬집는다 (Hillary and the Liberal Way of Lying).  
먼저는 ‘이메일 스캔들’(장관 재임시절 관용 이메일이 아닌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해 공식 업무를 처리했다는 논란)이다.  
사소한 거짓말, 큰 거짓말, 용서할 수 있는 가벼운 거짓말, 형사 고발될 소지가 있는 거짓말들이 모두 급속 밝혀졌다. “내 개인 이메일 서버는 남편 빌 클린턴 전 대통령 것이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전 임기 동안 (그리고 평생 동안) 단 두 통의 이메일을 보낼 정도로 이메일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인물인데도? “기기를 하나만 사용하는 게 편리해서 그랬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기기를 하나 이상 사용하는데

파워 커튼의 작업 방식(M.O.)을 넘어, 거짓말을 하는 진보적인 방식(liberal way of lying)으로 자리매김했다고까지 평가한다.  
그러나 클린턴 부부의 소위 “진보적인 방식의 거짓말”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몰라도 정작 “속내”를 항상 숨겨 온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메일 게이트와 동시에 힐러리의 정직성에 문제가 있다 것이 드러난 것은 바로 클린턴 재단기부금 기부자 명단 공개 약속 불이행이다.  
로이터통신은 힐러리 클린턴이 지난 2008년 클린턴 재단 기부자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클린턴 재단은 2008년 이후 20만 명 이상의 기부자 명단을 매년 공개해왔으나 재단 지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헬스 액세스 이니시티브’ 프로그램(CHAI) 기부자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CHAI는 기부금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가난한 사람들이 싼 가격에 HIV약을 제

공반도록 돕는 자선 프로그램 을 오바마 정부측이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제니퍼 프리드먼 백악관 대변인은 “어찌 됐건 클린턴은 평균 도덕요건보다 더 나아갔다”고 클린턴을 두둔했다.  
그러나 미 방송 CBS의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26%만이 힐러리 전 장관을 선호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힐러리 전 장관을 선호하지 않는 응답은 37%에 달했다. 선호도보다 비선호도가 11%포인트나 앞선다.  
이번에 힐러리 전 장관이 기록한 선호도는 CBS 여론조사에서 얻은 결과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최저치는 회고록 ‘살아있는 역사(Living History)’ 출간 직후인 2003년 6월 조사 때 기록한 24%다. 최고치는 국무장관 재임 시절인 2009년 3월 조사의 58%다.  
특히 힐러리 전 장관이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항목은 ‘정직성’이다. 응답자의 42%만이 그가 정직하게 믿을 만하다고 답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답은 47%에 달했다.

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이 민주당의 대권후보로 나서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 이유가 힐러리 클린턴은 아무리 좌파 진보세력인 척 노력해도, 그녀의 타협적 또 기업친화적인 무늬(막대한 정치헌금을 받아왔기 때문에)가 이미 오래 전부터 알려진 상태이고, 그녀의 신뢰성이 여러 번 타협되어 있는 반면 워렌은 학자로서 또 이제는 정치인으로서 한사코 서민을 옹호하고 체계를 감시하는 ‘사람들’의 대표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이오와 공화당 신앙과 자유 서밋에 참석한 전 휴렛-팩커드 CEO였던 피오리나(Carly Fiorina)는 한마디로 힐러리가 미국의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말한다: “힐러리 클린턴이 여자이기에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녀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면에서 계속)  
교회공동체는 교회력으로 아버의 날을 정해 부모의 은혜를 새삼 기리고 부모께 대한 자녀로서의 자신의 태도를 정적으로 점검하는 절기를 지켜나가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다. 부

모의 은혜를 잘 듣고, 그 가르침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너를 낳아 준 아버지께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한다. 항상 어머니를 즐겁게 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해야 한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며, 네 부모를 공경

하라고 한 계명을 잘 지켜야 한다.  
어머니날의 제창자, 안나 자비스의 제안처럼 “오늘은 우리가 어머니에게 뭔가를 드려야 하는 날입니다. 다정한 말 한마디, 작은 선물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어머니께 기쁨을 드리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은 편지를 써 어머니의 은혜를 기억하자. 어머니의 사랑은 매일매일 새롭다”. 어버이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하여금 부모공경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어가자!



### 시편 121편 : 매임에서 자유를 받았으니 생각이여 감사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는 우리가 깨닫기 전에 그대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한 시도 떠나지 않고 어머니가 갓난아이를 돌보듯이 지키시고 계시는 것을 알려 주시는 영적 실상입니다.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우리는 지금까지 배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믿음의 눈이 열려 보여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배풀어주시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말씀대로 하실 하나님이 더욱 믿어집니다. 이러한 영적 현상은 성령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는 우리가 깨닫기 전에 그대여 감사하고 지금도 부족함이 없지만, 신앙이 자라므로 그 깨달음의 영역이 점점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는 것에 비례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데 그 사랑을 우리가 그대여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은혜는 변함이 없으며 영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것을 얼마나 깨닫느냐 하는 것은 각각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좇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을 때,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엡1:4).  
시편 121편 3절과 4절을 보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돌보심이 한 시도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돌보고 계십니다. 한 시도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소유하려고만 애를 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항상 불평, 불안, 초조가 있습니다. 많이 소유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일상생활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 값이 복입니다. 있음으로 감사함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있음으로 감사한 것이라면 그 감사는 곧 사라질 것입니다. 만족이란 멈추지 않고 불만으로 기울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어주신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있음으로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존재로 지어주신 것이, 그 존재가 복의 존재로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하십니다. 즉 감사하도록 하나님이 지어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변함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제일 큰 감사입니다. 오늘도 호흡하고 있고 음식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감사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도 배우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적입니다.  
기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바라던 어떠한 것을 충족시키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침을 건강하게 시작해서 저녁에 건강하게 돌아오는 것은 어떠한 기적보다도 큰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만나에 대한 감사는 잊어버리고 애굽에서 먹었던 여러 가지 것들만 떠올리는 그 생각의 습관이 그들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생각하는 것을 복되게 고쳐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놓아도 좋은 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부족하고 불만인 것만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감사할 것을 감사하는 것에서 구별됩니다. 감사할 것을 감사할 줄 아는 것, 남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만큼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은 감사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훈련하여 모든 것에 감사함입니다. 다른 사람이 감사하지 않는 것도 우리에게 감사가 되는 것이 넘치는 복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시150:6)고 하였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능력이 무디어져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감사의 능력이 살아나게 해야 합니다. 감사의 능력이 살아나면 초가집에 살아도 행복합니다. 돌아보면 엄청나게 감사할 일이 많은데 감사하지 않는 것은, 생각의 습관이 고장이 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나에게 있는 것을 감사하는 습관을 의식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기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야로 늘 지켜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피곤치 않으신 가운데 풍성한 사랑으로 돌보아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인정만 한다고 해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대로 생각할 수없이 반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습관대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나의 생각하는 습관을 진리의 말씀대로 반복적 훈련으로 고쳐야 나의 생각이 감사하게 되는데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음 받았습시다. 이제는 열심히 감사하는 생각을 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더욱 살아야 합니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 GRACE THEOLOGICAL SEMINARY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 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과정** ● 목회학 박사과정(D.Min.)

1. 졸업 논문 발표  
일시: 2015년 5월 7일(목) 오전 9시
2. 졸업 사은회  
일시: 2015년 5월 7일(목) 오후 6시
3. 졸업식 리허설  
일시: 2015년 5월 8일(금) 오전 8시 30분
4. 총장주관 만찬  
일시: 2015년 5월 8일(금) 정오
5. 졸업식  
일시: 2015년 5월 9일(토) 오전 9시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신앙칼럼**

**강준수 목사**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



**상한 갈대**

성경은 우리들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 중에 생각해볼수록 마음에 와 닿는 표현이 바로 갈대, 특별히 '상한 갈대'라는 말이다. 갈대는 어디서든지 습기만 있는 곳이면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는 번식력이 강한 식물이다. 그러나 작은 바람 앞에도 여지없이 흔들리고 마는 것이 갈대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가리켜서 상한 갈대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올 때 어떤 생각을 하고 나오는 지 모르지만 바로 지금 주님이 갈

대를 보시듯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다. 갈대 중에도 특별히 상한 갈대로 보고 계신 것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인간은 가장 상하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이다. 사람만큼 상하기 쉬운 존재가 없다. 그저 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은 상처를 받고 우리 인생은 꺾이기 쉬운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이다. 한번은 제가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소개하는데 그만 소개를 받으신

분이 상처를 받았다. 왜냐하면 그분 앞에 계신 분을 소개하면서 "이러이러한 분이신 데 참 귀한 분이 오셨다"고 소개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바로 그 분을 소개했는데 그분을 소개할 때에는 그만 "귀한"이란 말을 하지 않았다. 거기에 그분이 상처를 받았다. 그 심정을 바꾸어서 생각해보니까 저 같아도 상처 받았을 것 같다. 우리는 그렇게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상하기 쉬운 존재이다. 미국 내에 있는 병원의 환자들 65% 이상이 Stress relating disease로 치료받고 있다고 한다. 위장병, 혈압에 심장병 같은 모두가 스트레스와 연결된 병들이라고 한다. 우리는 모두 이미 상한 갈대들이다. 이미 상처가 심하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아무 것도 아닌 작은 말 한마디에도 그만 우리는 상처를 받고 분함을 느끼고 마음이 상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 모두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은 인생을 살았는지 주님이 우리를 가리켜 상한 갈대라고 말씀해주시는 그 말씀 한마디로도 우리는 위로가 될

정도이다. 우선 가정에서 받는 상처가 많고 크다. 서로 사랑하면서 살자고 만나 결혼한 가정인데 평생을 위로하면서 살자고 만난 가정인데 어디 그렇게 사랑만 받고 위로만 받고 사는가? 가정에서 받는 상처들이 얼마나 큰가? 어느 부부는 그 마음이 편지를 못해서 거의 1년 동안을 말하지 않고 지낸다는 말을 하는데 그 남편은 남편대로 그 아내는 아내대로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크겠나?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람 사는 것이라고 하겠는가? 우리는 다 이미 상한 대로 상한 갈대들이다. 가정이 아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온갖 상처를 받고 살아간다. 영어 못한다는 그 이유하나 때문에 얼마나 눈치를 보이고 뭇시 당하는가? 뒤에서 비웃고 teasing을 당하고! 어떤 분은 6년 동안이나 열심히 하루도 안 빠지고 열심히 일하다가 한번은 몸살감기에 걸려서 쫓겨났다고 3일 동안을 직장에 못

테 전화가 왔는데 무어라 하는가 하면 얼마나 아프냐? 묻지도 않고 You are fired. 회사 그만 두라는 것이다. 이만생활의 세파 속에서 얼마나 우리들의 자존심이 꺾이는 상처를 받는가? 가정 직장 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교회에 등록하시는 분들을 면담해보면 가슴 아픈 사람들이 많다. 푸깅을 열고 보면 우리는 누구나 가슴속에 비애와 슬픔과 탄식이 있는 사람들이다.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보시고 보살피시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는 꺾어져도 다시 일어서게 되는 갈대임을 믿게 된다. 불타고 꺼져가는 것 같아도 불꽃같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갈대이다. 없어질 것 같아도 어디서든지 믿음의 습기만 있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갈대처럼 오히려 상한 갈대들이 더 강하고 신앙의 위력이 있는 것이다. 시편 147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상심하고 꺾여보

고 상처받아본 분들이 가만히 보면 더 강하다. 아픔을 안다. 아픔을 견디고 일어서고 그 신앙의 힘을 가지고 일으킨 역사가 바로 우리 기독교 역사이다. 그러므로 상한 갈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승리가 있다. 모세도 상한 갈대였다. 다윗도 상처투성이였다. 베드로도, 마태도, 간음하다 불잡힌 여인도 다 상한 갈대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벽들을 쪼개시고 상한 갈대를 엮으셔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오히려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낼 수 있는 상자 구원의 방주들로 쓰임 받은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기를 바란다. 여러분도 다 상한 갈대들이다. 그래서 우리끼리도 힘들지만 서로 사랑함으로 엮어지고 거기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역정을 질하고 결코 죄악의 물에 빠져 침몰하지 않도록 서로를 띄우게 만들어 구원역사의 주역들로 쓰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푸 / 른 / 초 / 장**

**차근규 목사**  
(순복음부천교회 담임)



본문 히브리서 3장은 "우리의 믿음은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 신앙의 근본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엿것을 생각하고 땅엿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취었음이니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위엿것을 찾고 위엿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땅엿것으로는 우리가 이미 죽었고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모든 것이 헛되며 궁극적인 실패일 따름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천문학자가 망원경을 가지고 밤새도록 성좌를 바라봄과 같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깊이 생각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의 믿음의 도리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의 도리란 우리의 신앙고백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님, 나 위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계신 예수님 그리고 심판주가 되어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이처럼 믿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눈에 보이는 충분한 근거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롬8:24). 보이지 않은 것들을 바라는 것이 희망입니다. 믿기 어려운 것들을 믿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까닭에

그분의 사랑과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감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전인격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대제사장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대제사장은 둘째 장막에 일년에 한번씩 들어가되 동물의 피를 가지셨습니다. 또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란 말의 원래 뜻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란 의미로써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도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의 직분을 완수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대하여는 참된 순종을 보이셨고 사람들에게는 참 사랑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사도되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아담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지체된 성도들을 양육하시고 각자에게 알맞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목자되시어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셔서 삶을 풍성하게 하

셨습니다. 또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셔서 가지인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도록 도우시며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교회의 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되셔서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누릴 아름다운 삶을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의 대제사장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대제사장은 둘째 장막에 일년에 한번씩 들어가되 동물의 피를 가지셨습니다. 또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란 말의 원래 뜻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란 의미로써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도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의 직분을 완수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대하여는 참된 순종을 보이셨고 사람들에게는 참 사랑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사도되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아담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지체된 성도들을 양육하시고 각자에게 알맞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목자되시어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셔서 삶을 풍성하게 하

다. 생각에는 위대한 힘이 있어서 마음으로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면 상상대상이 내게 끌려오고 내가 그에게 끌려가서 연합되고 동화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생각이 그 사람의 인격 건설의 기초가 되며 또한 인격은 그 사람을 다는 저울이 됩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도 "대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고후10:5)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3)영력을 갖게 됩니다. 영호와를 양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영적인 힘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영력은 최고의 힘입니다. 성도는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연결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즉 예수님과 깊이 교제함으로써 말씀의 새 힘, 기도의 새 힘, 지혜의 새 힘, 율복을 이기는 새 힘, 환난을 이기는 새 힘, 핍박을 이기는 새 힘, 봉사하는 새 힘, 전도의 새 힘, 기쁨과 감사의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힘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에지지 않을 뿐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4)죄악이 심중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사탄 마귀는 사람의 생각을 타고 들어와서 죄악의 씨를 뿌리는데, 예수님만이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사탄이 들어올 길과 틈이 없습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는데 같은 것은 같은 것끼리 모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썩은 생선에 쇠라리가 날아오고 향기로운 꽃에 벌과 나비가 날아오는 것과 같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를 뿌려내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임재하시어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심령의 천국을 이루어 주십니다. (8면으로 계속)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

**대한예수교 장로회(합동) 제 37회 해외총회 소집공고**  
The General Assembly of Overseas(Hap-Dong) Korean Presbyterian Churches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각 노회와 본 총회 총대원 여러분 배후에 충만하기를 기원하면서, 다음과 같이 비상총회 소집을 공고하오니 참석하셔서 과거의 혼란과 무질서를 바로잡고 본 교단의 정체성을 회복코저 하오니 다함께 협력해 주심 바랍니다.

- 주 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32)
- 일 시: 주후 2015년 5월 18일(월) 오후 4시 - 19일(화) 12:00 까지
- 장 소: 주 예수 사랑 교회(강유남 목사 시무)  
1155 Hendricks Cswy Ridgefield NJ 07657  
(551)655-4224, (201)941-5555
- 숙 소: 총회장소 인접 힐튼호텔
- 참 고: (1) 각 노회 총대는 총회전까지 명단과 현의 건을 보내주심 바랍니다.  
(2) 회비 \$100, 부부동반 \$150  
(3) 숙식은 총회에서 부담하며 숙소는 도착 순으로 배정함

- 3대 혁신: (1) 과거 불법과 관행적인 편법을 단호히 혁신함  
(2) 개혁주의 칼빈 신학사상 정칙로 교단의 정체성을 회복함  
(3) 이중 교적자 및 한국의 목회자와 기준 미달자는 제외됨
  - 유의사항: 기참공항은 New Wark Airport 로 하시고 도착시간을 알려주시면 안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 연 락 처: Tel.(718)445-0362, Tel(551)655-4224
- 주후 2015년 4월 25일**
- 비상대책위원장: 정익수 목사(직전총회장)
  - 비상대책서기: 엄기환 목사(증경총회장)
  - 비상대책위원: 총무 및 각 노회장
  - 준비위원장: 홍성표 목사
  - 환영위원장: 이대길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합동) 해외총회**  
The General Assembly of Overseas Korean Presbyterian Churches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 인디애나에서 통과된 종교자유보호법에 대한 크리스천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지금 미국 내에는 그 어떤 때도 볼 수 없었던 매우 반기독교적이고, 반미국적인 반항들이 정치적인 권력과 사회적 권력으로 공공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를 살속에 날카로운 칼날을 겨냥하여 우리들의 심장을 꿰뚫으며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눈뜨고 코를 베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심장에 칼을 맞으면서도 혼돈하여 피만 흘리는 상황이

은 통과되었으며 많은 주정부에서 미리 미리 도입해갔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인디애나에는 종교자유를 보호하는 법안이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한, 알칸사스에서도 같은 "종교자유 보호법안"을 필요에 의해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모든 것이 법으로 이루어지기에 필요에 의해 사악한 법, 좋은 법안들이 형성되지요.

성애 차별법안"이라고 할 수 있나요? 매우 사악한 그들의 전략과 전술입니다. 동성애운동가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비즈니스 기업인들이 함께 동쳐서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는 법안을 취소하도록 협박적인 기압을 넣고 있는 상황은 미국에서 지금까지 볼 수 없는 매우 비민주적이고, 반미국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동쳐서

최우선 순위와 목적은 동성애자들을 보호하고자 만든 것이라는 것을 이제야 동성애운동 단체대표들을 통해 그 실체와 진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 무슬림들에게 그들이 쓰고 있는 머리 수건이나 옷들에 대해서 어떤 신앙적인 comment 를 하면, 거기에 대해 그들은 자신에게 comment한 사람을 소송할 수 있는 종교자유

### "종교자유보호법안"은 1993년에 제정...기독교인 역차별로 이용 "동성애 차별법안"으로 인식시켜...최우선 목적은 동성애자 보호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디애나 주에서 통과시킨 RFRA(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 종교자유보호법안)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미국 의회 주류 미디어, 신문사, 통신원, 민주당 자유주의 정치인들은 물론이거니와 미국의 대기업들까지 합세하여 인디애나 주에서 통과된 법안은 사악한 것이고 동성애자들을 차별하고자 만들어진 법안이라고 협박까지 하는데도 기독교인들은 그저 바라보고 교회 일만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인디애나 주와 알칸사스 주에서 추구하는 "종교자유보호" 법안은 우리 모두의 가장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일임을 알아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깨어서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세상의 뉴스와 미디어에게 세상사람들과 똑같이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올바른 정보를 알고 알리는 것은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받고 사는 크리스천들의 임무이며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RFRA 법안은 새로운 법안이 아닙니다!

미국 19개주에서는 이미 인디애나에서 지금 통과시킨 RFRA 법안과 비슷한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는 법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1993년 클린턴 대통령 때 만들어진 것이며, 당시 모든 의원들에 의해 97대3으로 "종교자유보호법안"

현재 동성애운동가들과 자유주의 정치인들의 반대는 얼마나 비민주주의적이며 반미국적(Anti-America)인가?

몇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샌프란시스코의 시장 Ed Lee는 소속 공무원에서 시 예산으로 인디애나주에 출장을 갈 수 없다고 지시했고, 애플회사의 CEO이자 잘 알려진 동성애자, 팀 쿡은 공공연하게 이 법안에 반대한다고 선포하고, 또한, 이런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알칸사스 주지사에게 촉구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세계에서 매우 유명한 클라우드 Cloud 컴퓨팅 업체 또한, 자신들의 직원들이 인디애나에서 하는 행사와 출장을 전면 취소하겠다고 했고, 그 외에도 힐러리 클린턴 및 민주당의 자유주의 정치인들은 그들의 반대 의견과 이런 종교자유 법안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시대에 역행하는 사람들이라는 비판까지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로마서 12:1-2절 말씀처럼 저희는 시대를 역행하는 사람임이 맞습니다. 우리는 시대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에 이들의 말이 그런 점에서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시대를 역행한다면, 그것은 칭찬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We must be doing something right!

무엇보다 이들은 미디어를 장악하여 마치 인디애나 주에서 "동성애 차별법안"을 만든 것처럼 왜곡된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자유 보호법안"이 어떻게 "동

약한 기독교인들을 향한 심각한 "역차별"로 볼 수밖에 없기에 크리스천들이 깨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회복케 하는 RFRA" 법안의 무엇이 동성애자 운동가들을 두렵게 하길래 그들이 법안을 강력히 반대하는가?

동성애운동과 인권 운동의 대표적인 Human Rights Campaign(HRC) 단체에서 인터뷰 할 때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했습니다. HRC에서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단체로서, 인디애나주에서 추진하는 "종교자유법안을 반대하는 것은 그 법안으로 인해 동성애자들에게는 매우 큰 차별이 생길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자유종교 법안(RFRA)이 통과되면, 무엇보다도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차별금지법안 Non-Discrimination Law"을 그들(기독교)이 지지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처음부터 Non-Discrimination Law(차별금지법안)을 장애인이나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추진하여 동성애를 지지하는 민주당의원들이 통가를 시켰었는데, 그 당시 보수파 정치인들 중에서도 "차별금지법안"이 이렇게까지 크리스천을 역차별시키는 것으로 사용될지 인식하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차별금지법안"의

가 있습니다. 미국인의 무슬림들은 이미 종교의 보호를 충분히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가치관으로 세워졌던 미국에서 기독교는 더 이상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을뿐 아니라, 동성애자들이 원하는 요구를 받아주지 않으면 "차별금지법안"에 의해 법적으로 엄청난 벌금을 물던지 아니면 감옥을 가게 됩니다.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 않기 위해 일반인이 매우 큰 "역차별"을 받게 되는 법안인 것입니다. 또한, 다른 종교들은 보호를 받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미국은 심각한 병이 들어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경고!

지금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통해 그 사실들이 증명되고 있으며, 따라서 "나는 괜찮아, 내 교회는 괜찮아"라고 생각할 만한 큰 실수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영적 전쟁이며, 영적 가치관 전쟁입니다.

지금 공립학교에서는 "결혼에 대한 정의는 없었다"라고 교과서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함께 일어나 기도하며 믿음의 결단을 하여야 할 때입니다. 진리에 우뚝 선다는 것은 희생이 따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tvnext.org 또는 Facebook에서 tvnext.org를 찾으면 됩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E-Mail: t1spc0316@gmail.com

Q: 개척교회를 섬기는 성도입니다. 우리교회 목사님은 신실하고 열심히 목회하지만 부흥이 쉽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교회에 부흥이 올지 알고 싶습니다.

-달라스에서 심 집사

A: 참으로 사명을 가지고 목회하시는 목사님과 성도님을 격려합니다. 오늘의 이 시대는 참으로 부흥이 필요한 시기요 개인적인 부흥, 교회적인 부흥 집단적인 부흥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은 부흥을 목말라 하고 진정한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는 극심한 가뭄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이 비를 받겠다고 대야를 밖에 내놓는다고 비가 담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야 합니다. 하늘에서 부흥의 비를 내려주셔야 합니다. 산타모니카 비치에 가면 설빙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설빙을 하려면 바다에서 파도가 와야 합니다. 바다의 파도도 역시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

교회부흥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성령의 바람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 기다려야

다. 마찬가지로입니다. 부흥의 파도도 하나님이 오게 해주어야 합니다.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부흥이란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부흥을 달라고 매달리고 강청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은 부흥의 비결은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라고 했습니다. 교회사를 볼 때 부흥운동 뒤에는 항상 기도의 불길이 있었습니

둘째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역사하셔야 합니다. 하박국 3장 3절에서 하나님이 데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 부터 오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데만과 바란산은 에돔땅입니다. 민11:1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네가 혼자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지도하면 너무 짐이 무거우니 백성의 장로와 유사 중에 지도자급의 인물 70명을 모아 회막 앞에 모으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성령이 임하게 한 것처럼 너를 돕는 지도자들에게도 성령을 부여할 것이니 그들을 모이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곳이 바로 이 바로 데만과 바란 산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하자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 70인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크게 받아 예언하는 것이 나옵니다. 부흥은 성령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시고 방문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허밍버드"라는 새가 있습니다. "윙윙거린다"는 뜻에서 "허밍"(humming)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한국말로는 "벌새"입니다. 벌같이 작은 새라는 말입니다. 길이가 6센티 정도 되는데, 1초에 50-70회 정신없이 날개짓을 합니다. 고속 카메라로 찍어도 잘 잡아내지 못할 속도입니다. 그렇게 죽어라 날개짓하지만 오래 못갑니다. 4년 안에 그새는 거의 다 죽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90센티 정도되는 큰 새인데 날개를 퍼면 3.5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 주체에 무려 80세를 산다고 합니다. 왜? 알바트로스는 폭풍을 좋아해서 바람이 강하게 불면 바람 끝에 올라가 글라이딩을 합니다. 나는 것의 99%이상을 바람의 힘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날개짓은 기계해야 1%미만입니다. 온몸을 바람에 맡깁니다. 그래서 쉽게 날고, 멀리 날고, 오래 날다. 내 혼자 날개짓을 하면 힘이 들고 오래 못 갑니다. 성령님의 바람을 타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 미주 갈멜산기도원 기도성회

날짜 2015년 5월 1일(금) ~ 12일(화)

시간 새벽 5:30, 오전 10:30, 저녁 7:30

문의 213.382.1450

장소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한인타운 내 카타리나와 8가 코너에 있습니다

### 강사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 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gstcenter98@gmail.com

### 방송설교 보기

홈페이지 http://www.galmelsan.or.kr 유 튜브 http://www.youtube.com/user/cbsolomontv GoodTV 기독교복음방송 : 멘토특강 희망드림 - YouTube에서 '멘토특강 희망드림 60회' 차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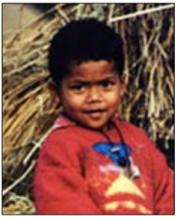


### 2015년 부흥성회 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1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감사예배 1~10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축복기도성회 2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강화) 3일 인천강화교회(이철호목사) 8일 평화의동산 기도원(미중진목사) 11~13일 (합동)동인교회 남부시절 재부흥회 16일 과천교회(주현신목사) 18일 예복교회(소진우목사) 22~3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일 LA 주님의 영광교회(신승훈목사) 2~7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9~12일 GST 신학생훈련(34차) 15일 사랑스런교회(배만석목사) 16~19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2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23~25일 동춘교회(윤석호목사) 27일 백석신학대학원 개강수련회	1~3일 예수비전교회(박창홍목사) 5일 총신대학교 성령수련회(김지영총장) 9~11일 (합동)태백시절 연합성회 16~19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3~26일 갈멜산강화금식기도원(강화) 29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6~8일 용인 신세계교회(문홍구목사) 13~16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0~22일 안산 시민교회(이성관목사) 23일 캠퍼스대학교, 대학원 재물 26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27~29일 화평교회(이재욱목사)	1~14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8~21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4~27일 하늘비전교회(오영택목사) 31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1~4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강화) 8~11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15~17일 온양관리교회(광현목사) 21일 예루살렘교회(류병희목사) 25~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1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3~16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6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27~29일 천마산기도원(옥광석목사)	3~6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9~12일 나사렛성결교단 연합성회 (장소: 나사렛대학교) 17~20일 GST 신학생훈련(35차) (장소: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 21~3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네팔의 라즈반시(RAJBANSI)



라즈반시족은 네팔에 거주하는 110여개의 인종그룹 가운데 하나로 남으로는 인도와 북으로는 티베트 사이에 걸쳐 있다.

라즈반시족은 "거친"사람들로 묘사되고 왔는데, 보통 중간키에 피부가 검다. 언어인 라즈반시어는 네팔의 공식 언어인 서벵갈 지역의 벵갈리어와 유사하다.

삶의 모습

대부분의 라즈반시족은 농부들로 자신의 노동력에 의존해 생존한다. 라즈반시족이 몇몇 가축을 기르고는 있지만 그 가축들을 주요 수입원으로는 생각하지 않으며 자신들이 만들 수 없는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해 파는 목으로 사용된다.

위해 분투하고 있다. 집들은 나무, 대나무, 짚, 진흙으로 만들어진다. 10채에서 100채의 가족들이 군집해 한 마을을 이룬다.

라즈반시족은 매우 간단한 옷을 입는다. 남자들은 도티스와 랑가우티스라 불리는 무릎까지 내려오는 옷을 입으며 여자들은 페타니스를 입는다.

신앙

라즈반시족은 수백만의 남신과 여신을 섬기는 힌두교인이다. 모든 마을에는 여신 칼리(창조의 화신)를 섬기기 위해 만들어진 별다른 신당이 있다.

필요로 하는 것들

네팔정부는 복음의 어떠한 형태에 대해서도 심하게 반대하고 있다. 극심한 규제로 말미암아 기독교인이라고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을 가혹하게 처벌 받고 있다.

되고 있다. 성경은 그들의 언어로 아직 번역되지 않았으며 영화 "예수"도 그들의 언어로 번역되지 않았으며 기독교라디오방송이 전파를 타지 못하고 있다.

소수의 라즈반시족 신자들과 함께 교회에 대한 탄압과 성경, 기독교방송, 네팔지역 선교사들의 부족으로 라즈반시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들을 기회가 거의 없으며 고립된 그들의 모습은 외부인들이 그들에게 다가가는데 어려움이 되고 있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네팔 대지진 사망자 1만명까지 추산

지난 25일 발생한 네팔 대지진으로 사흘째로 접어들면서 구조 작업에도 속도가 붙고 있지만 사망자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AP통신은 27일 네팔 경찰을 인용, 지금까지 네팔에서만 사망자가 3천904명에 달했다고 부상자는 7천180명으로 집계했다고 보도했다.

수도 카트만두에서만 1천명 이상이 숨진 가운데 외곽 지역으로 구조 작업이 확대되면서 사상자가 계속 추가로 발견되는 상황이다.

고르카 지역 고위 관계자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음식과 피신할 곳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마을 주택의 70%가 파괴됐다"며 "부상자가 너무 많아 사망자 수가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전했다.

지진으로 네팔 전역에서 상당수 도로가 붕괴되고 통신망과 전력 공급이 끊긴 탓에 진앙지 주변으로의 구조대 접근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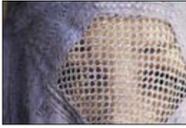
외신들은 네팔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번 대지진 사망자가 8천명(교도통신)에서 1만명(영국 데일리메일)에 이를 것이라는 비판적인 관측을 내놓는다.

한편 한국 선교사들과 한국 교회는 발빠른 대처를 보이고 있다. 현지 한 선교사에 따르면 카트만두 인근의 와스방교회와 분평교회 등이 붕괴됐고 성도 1명이 사망했다.

의 집도 무너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상 최악 박해에도 아프리카 복음 확산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참수를 당하고 총에 맞았다. 성경구절을 읊었다고 바다에 던져지거나 지켰다. 하지만 그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



22일 아프리카 성공회 주교인 그랜트 르만판드는 "IS가 에티오피아인들을 어떻게 불렀는가를 무시할 필요가 있다"며 "IS는 그들을 '십자가의 사람들(people of Cross)'이라고 했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크리스천 인구가 많은 국가다. 9000만 명 중 3분의 2가 기독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티오피아는 이슬람 극단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2011년 3월 무슬림 시위로 60여개의 교회가 불탔다.

한편 앞서 발생한 사건에서도 아프리카 기독교인들

은 모두 신앙 때문에 희생됐다. 지난 14일 리비아를 출발해 이탈리아로 가던 난민선에서는 기독교인 12명이 지중해에 던져졌다.

이들의 희생은 아랍 세계에 복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콥트교도 사건 이후엔 성경을 찾는 사람이 폭증해 이집트성서공회 사상 최고로 일주일 만에 165만권의 성경이 배포됐다.

보코하람 나이지리아·니제르 공격...

지역 연합군의 공세에 밀려 후퇴를 거듭하던 보코하람이 반격에 나선 가운데 보코하람으로 추정되는 무장세력의 공격으로 나이지리아 북동부와 니제르 남동부에서 100여 명의 민간인과 군인이 살해되거나 실종됐다.



지난 주말 차드 호수 내 섬에 숨어 있는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니제르 군인 48명이 사망하고 36명이 실종됐다고 AFP 통신이 차드군 보안소식통을 인용, 27일 보도했다.

나이지리아에 있는 보코하람 주요 기지와 접하고 있는 니제르 남동부의 다른 소식통은 사망자가 80명을 훨씬 넘고 실종자가 약 30명이라고 말했다.

한편 AFP 통신은 같은 날 보코하람으로 보이는 무장세력이 나이지리아 북동부 한 마을에서 두고 간 식량을 가져가려고 귀가하던 나이지리아 주민들에게 총격을 가해 21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관계자와 피해자의 진척들을 인용, 보도했다.

요베 주 구지바 지방정부 관계자 바바 누후는 "숨진 사람들은 불타람 마을에서 무장괴한들에 의해 저지당했으며 우리는 보코하람이 범인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본격적으로 개시된 지역연합군의 공격으로 영토 대부분을 빼앗긴 보코하람이 차드 호수 내 일부 섬들과 나이지리아 북동부 삼베사 숲 등으로 후퇴한 뒤 최후 항전에 나서는 분위기다.

나이지리아군을 비롯한 지역연합군은 지난 22일

보코하람의 마지막 요새로 불리는 삼베사 숲에 대해 전투기까지 동원하는 등 대대적인 공격에 나섰다. 지뢰 폭발로 군인 1명과 자경단 3명이 사망한 뒤 후퇴했다.

나이지리아서 보코하람 학살추정 시신 400구 발견

나이지리아 북동부 다마삭에서 테러조직 보코하람에 살해된 것으로 보이는 시신 수백구가 발견됐다고 27일 주민과 관리들이 전했다.



이 도시가 속한 보르노 주 정부도 정확한 숫자는 밝히지 않았지만 "수백명이 사망했다"고 확인했다. 현지 주민 카우미 쿠수르씨는 "시신이 집과 도로 곳곳에서 발견됐다. 말라붙은 다마삭 강에는 더 많다"며 "지난 주말 동안 시신을 수습해 공동묘지 20여곳에 나눠 매장했다"고 증언했다.

다른 주민 무함마드 사디크씨도 "시신은 사막에서 날아온 모래에 덮여 부패해 있었고 어린이와 여성 사망자도 눈에 띄었다"며 "주 당국이 주민들을 동원해 시신을 매장했다"고 전했다.

다마삭은 이달 초 이웃 국가인 차드와 니제르군이 군사작전을 벌여 보코하람으로부터 탈환한 지역으로, 그동안 다른 지역으로 도피했던 주민들이 돌아오면서 희생자들도 속속 발견되고 있다.

지난달 20일에도 이 마을 곳곳에서 총에 맞거나 참수된 시신 100구 가량이 발견됐다. 또 보코하람 전투원들이 마을을 떠나면서 여성과 어린이 400-500명을 납치했으며 이 가운데 50명을 사살했다는 주민 증언도 나왔다.

한편 무함마두 부하리 대통령 당선인은 이슬람 전사를 자처하는 보코하람에 대해 '가짜 종교집단'이라고 비난했다. 오는 29일 취임하는 부하리 대통령 당선인은 "학교 기숙사나 시장, 예배 장소에서 어린이를 살해하는 것을 허용하는 종교는 없다"며 "보코하람은 종교와 아무 상관이 없는 테러집단이며 우리는 그들을 테러리스트로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청함 나라

기도원 원장 퇴임 및 취임 예배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안나산기도원에서는 지난 33년간 변함없이 수고하셨던 이경숙 원장님의 퇴임식과 제2대 원장으로 부임하시는 문석호 목사님(뉴욕 효신장로교회 담임)의 취임식을 아래와 같이 거행합니다. 부디 오셔서 축하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함께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 일시: 2015년 5월 8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안나산기도원 대성전
주소: 7910 Peters Rd. Frederick, MD 21704 / 연락처 301-874-2983~4
(저녁 6:00 시에 만찬이 있습니다)

안나산기도원

Anna Prayer Counseling Inc. 7910 Peters Rd. Frederick, MD 21704 301-874-2983,4 annaprayer@msn.com



# 교회역사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16)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 1. 초대교회 - 교회의 확장 (3)

‘건강한 교회’ 또는 ‘교회다운 교회’는 과연 어떤 것일까? 요즘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심각하다. ‘성경적인 교회’ 또는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를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손꼽고 있다. 물론 이것도 정답이 될 수 없다. 성경과 초대교회를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느냐에 따라 자신 나름의 ‘이상적인 교회’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70년대를 출발점으로 교인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교회의 수적 성장이란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그 과정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믿는 불행한 시대가 되었다.

질문: 초대교회의 확장 과정에서 드러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알고 있는가?

### 1) 교회역사를 보면...

■복음 전파의 열매  
사도행전의 중심이 베드로에서 바울로 넘어가면서 안디옥교회가

자주 등장한다. 초대교회의 집사였던 스테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예루살렘교회는 큰 환란이 찾아왔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해지면서 많은 성도들이 이방 도시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 혈통으로는 유대인이나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인 후신자 때문에 나그네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피신한 성도들은 일단 그 곳에 정착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나 정착 도시에서 살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이방 도시인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헬라인들이다. 참고적으로,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은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된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의 회심사건 이후이다. 그러

과 믿음에 충만한 착한 사람이었다. 안디옥교회는 그의 성실한 사역을 통해 안정된 모습으로 성장하였다.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그가 사도 바울과 동역을 선택하였다는 것이다. 안디옥에서 바울이 거주하던 다서까지 가는 길은 멀고 험했다. 그래도 바나바는 바울을 찾아가 만났다. 안디옥교회를 함께 섬기기로 부탁한 것이다. 바울은 회심과 동시에 주님으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두 사람의 협력 사역을 통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 ■복음 전파의 도구

안디옥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다. 무명의 성도들이 개척하여 시작된 교회가 복음의 열매를 맺음과 동시에, 그들이 지닌 생명의 씨앗을 영적으로 황폐한 이방 땅에 심는 도구로 쓰임을 받은 것이

이다.

그러나 이방지역을 향한 복음전파를 위하여 안디옥교회가 감당해야 할 커다란 부담이 있었다.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이었다. 두 사람의 협력사역이 일 년간 지속되면서 성도들의 삶이 놀랍게도 달라졌다. 심지어 그들은 그리스도인(Christian)이란 말을 듣게 되었다. 안디옥 도시에서 살던 교회 밖의 사람들이 성도들을 비하하면서 사용되었던 말이지만, 무척 감사하면서도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였다. 외인들의 눈에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추종하고 말과 행동에도 그를 전적으로 닮은 모습이 드러났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교회에서 잘 키운 성도 한 사람을 타지에 보내는 것도 교회로서는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하물며 바나바와 바울 같이 유능한 지도자를 선교사로 파송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 일을 결정하였다. 엄격한 의미에서 선교사역의 시작이 안디옥교회를 통해 이뤄진 것이다. 복음의 씨앗을 전하는 사역 가운데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 ■복음 전파의 열정

복음 자체가 능력이다. 복음전파는 복음의 파워를 믿는 자들의 발과 입술을 통해 이뤄진다.

(16면으로 계속)

## 그리스도인 명칭 시작된 안디옥교회, 이방선교의 모교회 사명 감당 교회 성도들 기도와 관심이 사도들의 강렬한 복음 전과 열정 초래

보면 고난의 길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의 씨앗을 품고 있었다.

안디옥은 그 당시 시리아의 수도로서 ‘동양의 여왕’이란 별명을 지닐 정도로 화려했다. 로마 제국에 속한 많은 도시들 가운데 세 번째로 큰 규모를 갖춘 도시였다. 예

므로 안디옥교회는 유대인과 헬라인 성도들로 함께 구성되었다.

안디옥교회가 개척의 시기를 통과하고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과정 속에서 바나바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 예루살렘교회는 구브로 출신이었던 그를 파송하여 교회를 돕게 하였다. 바나바는 성경

부터 이방선교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아라비아 사막에서 기도와 성경연구를 하며 3년을 지낸 후에 계속 사역의 기회를 기다리던 바울에게 하나님의 때에 바나바를 보내신 것이다. 향후 예루살렘에서 전파된 복음의 열매로 생긴 안디옥교회는 이방 기독교 세계의 모

다. 복음전파는 예수께서 승천하기 전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이다. 안디옥교회는 예수께서 친히 교회에게 맡기신 귀한 사역에 충실하였던 것이다. 복음의 씨앗으로 성장한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실천한 것



## 그래서 그랬던 거야? -성경의 압축파일 풀기 (7)

이진희 목사 (달라스 웨슬리연합감리교회 담임)



엘리사는 왜 나아만 장군이 찾아왔을 때 나와보지도 않았는가?

시리아의 사성장군 나아만이 나병에 걸려서 엘리사를 찾아갔다. 나아만은 엘리사가 정중하게 예를 갖추고 자신을 영접해 주리라고 생각했다(왕하5:11). 그러나 그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시종을 내보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왕하5:10). 이에 나아만은 대노하게 된다(왕하5:12). 자존심이 구겨질 대로 구겨졌다. 자신에 대한 모독으로 여겼다. 그는 돌아가려고 했다. 그러나 신하들의 만류로 잡았다(왕하5:13). 나아만은 할 수 없이 분을 삭이고 엘리사가 시킨 대로

했다(왕하5:14). 그 후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나타난다. 나아만이 그에게 앞드려 감사를 표하고 떠난다. 나아만은 시리아의 사성장군이였다. 왕의 친서까지 들고 이스라엘을 찾아왔다. 국사 자격으로 이스라엘을 찾아온 것이다. 그런데 왜 엘리사는 나아만이 찾아왔을 때 그를 영접하지 않았는가? 왜 나가 보지도 않았는가? 왜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았는가? ‘당신이 사성장군이면 사성장군이니 내가 당신을 두려워할 줄 아

느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인 내가 당신에게 굽실떨지 않느냐? 당신이 아쉬워서 나를 찾아온 것인지 나는 당신에게 아쉬울 것이 없다. 사성장군이 라고 해서 내가 당신을 특별 대우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오산이다. 나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누구도 특별 대우하지 않는다. 나에게 특별대우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 이러한 마음 때문에 나아만을 영접하지 않은 것일까? 아니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왕하5:9) 위풍당당하게 그를 찾아온 나아만이 눈꼴사나워서

그를 영접하지 않은 것인가?

‘당신이 진정 고침을 받고 싶다면 겸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고쳐주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만이 겸손하게 그에게 나아와 무릎 꿇고 사정하기를 기다리면서 엘리사가 그를 영접하지 않은 것인가? 만일 나아만이 신하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그냥 돌아갔더라면, 그는 돌아가자마자 10만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이스라엘을 축대밭으로 만들어놓았을 것이다.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엘리사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것이 되고 만다. 엘리사가 이러 사실을 모르고 괜한 자존심을 부렸던 것일까?

아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을 만나지 않았던 데는 이유가 있었다. 위에서 여러 성경구절들을 인용했다. 거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다. 바로 ‘깨끗하다’ ‘깨끗하게 되다’이다.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다. 그래서 ‘깨끗하게’ 되기 위해 엘리사를 찾아왔다. 엘리사는 ‘깨끗하게’ 되려면 요단강에 일곱

번 들어가라고 했다. 나아만은 요단강에 들어가 몸을 ‘씻는다’고 해서 ‘깨끗하게’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한다. 그리고 돌아가려고 한다. 이에 신하들이 말리면서 ‘깨끗하게’ 될 수만 있다면 일곱 번이 아니라 칠백 번이라도 요단강에 들어가서 마땅하다고 설득을 한다. 나아만은 요단강에 들어간다. 그리고 마침내 ‘깨끗하게’ 되었다.

‘깨끗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tahir’이다. 이 단어는 실제적인 정결함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정결함과 제의적인 정결함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다. 레위기의 정결법에 나오는 핵심적인 단어는 ‘정결’이다. 바로 이 단어가 tahir이다.

레위기에 따르면 대표적인 부정이 나병이다. 나아만은 제의적으로 부정된 사람이다. 나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된 사람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다.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기 때문이다. 그는 나병에서 완전히 낫기 전

까지는 누구도 접촉할 수 없다.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그리고 나병이 완전히 나은 다음 제사장에게 학인을 받아야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나아만은 바로 이런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다. 그러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를 만날 수 없었다. 교만해서 아니고,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고,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정결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를 만나지 않았던 것이다. 더군다나 그는 일반 사람이 아니고 예언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정결법을 어길 수가 없었던 것이다. 엘리사는 나아만이 ‘깨끗하게’ 된 후에 그를 만났다. 왜냐하면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에 ‘깨끗하다’는 단어가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는데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 이야기는 ‘정결법’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엘리사의 행동도 이해되어야 한다.

이메일: jinhee1004@yahoo.com

# 하나님의 구원계획 GPS CENTER 센타



저자 라흥애 목사



영어판, 중국어판 책도 판매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다니엘, 요한계시록, 성경 세미나



##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P.O.Box 610178 Bayside, NY 11361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판매)

## 전미주와 해외 44개국에 복음을 실어 나릅니다.

전미주 및 해외한인 교회 주소록 수록 신청서

교회 기록부 기관, 기독교 언론 선교회, 신학교, 기도원 및 수양관

### 보내실곳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 신규 □ 변경 □ 추가 변경전 전화번호 ( )

① 교회(기관) 이름	한글:	
	영문:	
② 교회(기관) 주소	.....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	Fax( )
	한글:	영문: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	
⑤ 사택 주소	.....	
⑥ 사택전화 & 팩스	Tel.( )	Fax( )
	E-mail Add.	@
⑧ Web Add.	http://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	

\*위의 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로 보내주시시오 ④ 번은 해당사항에 표시를 하세요

# 회중을 예배에 몰입하게 하라!

## CT, '찬양 인도자, 공연 유혹에 빠져들지 않기' 전문가 3인의 조언 소개 (중)

찬양인도자의 목적이자, 가장 큰 '유혹'이며 '성취감'을 느끼게 만드는 요소는, '회중이 예배에 몰입하는 것'이다. 그 목적을 위해 기울이는 노력이 음악적인 것이든, 예배 전의 강력한(?) 기도이든, 심지어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예배에 집중하고자 하는 마음이든 모두 적용될 수 있다. 일단 찬양인도의 자리에 서면 그 목적을 의식하지 않거나 힘든 일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예배를 마친 후의 사람들의 반응이 의식되기 마련이고, 앞서 언급한 자신의 방법론대로 예배에 임했는지 자기 자신을 평가하면서 교만했음을 회개하기도 하고 반대로 겸손하게 잘 예배한 자신을 보며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 경건하게 집중하라

예배 음악을 이야기 할 때, 공연은 어쨌거나 좋지 않은 말이다. 하지만 그럴 필요 없다: 공 예배의 어떤 순서를 인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공연자이다. 아무 준비 없이 또는 흐트러진 자세로 예배 순서를 인도하고 싶어 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

교회 안에서 모두들 기도하거나 말하는 동안에, 음악적 "달란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입증된 제한된 소수의 사람들은 예배를 이루기 위해 자신들



## 회중 찬송은 예배의 필수 요소... '솔리 데오 글로리아'가 출발점 음향, 조명, 영상 정교할수록 음악인도자가 공연자 될 가능성 커

의 재능을 제공한다. 그런 달란트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사이에 거리감을 조정할 수 있다. 나는 교인들이 "나에게는 달란트가 없어"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그들이 연주하는 음악가가 아니기 때문이라면서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맞는 말이 아니다. 동시에, 음악은 예배와 정체성에 한 부분이자 한 조각을 이룬다. 위대한 종교적 전통들 모두가 음악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우리가 음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는 말이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의 대부분에서, 종제를 제외하고는, 회중 찬송은 예배의 필수 요소였다. 예배에서 성도의 찬송을 도와주는 사람들은 "공연자"로 비난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이다. 예배에서 음악 공연이 남용된다는 인식은 아마도 회중의 참여 없이, 솔리스트들 양상뿐이든, 자신들의 음악적 기술을 강조하고 재능을 과시하는 음악가들 때문에 생긴 것 같다. 이것은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4면에서 계속)  
이렇게 자기 안에 천국을 이룬 사람은 세상에 나아가 천국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증거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향기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5) 재림의 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

하고 세상 일반 생각하는 사람은 귀에 세상 소리밖에 들려오지 않고 눈에는 세상의 현란함 외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천사들의 호령과 나팔소리로 친히 강림하시는 것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 길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바흐는 예배에서 오르간을 과하게 연주한다는 비난을 들었었다. 예배가 "공연"을 지향하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대체로 개별 예배자의 경험과 기대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진다. 어떤 사람에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기도하게 해 주는 것이 된다. 음악에 대한 취향에 따라 예배자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배 공간의 건축 구조이다. 공간 자체가 인도자를 예배를 돕는 사

람이 아니라 공연하는 사람으로 보이게 한다. 기술—음향, 조명, 영상—이 정교하면 할수록, 음악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공연자로 선을 넘을 가능성이 그 때문에 일부의 불평을 살 가능성이 높아진다. 인도자의 음악적 재능은 적절히, 곧 그들의 메시지가 성경에 충실하도록, 어떤 식으로든 기도—찬양, 경배, 감사, 고백, 중보, 축도, 축복—와 이어지도록, 그리고 회중이 드리는 찬송과 균형을 이루도록 사용해야 한다. 바흐,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헨델, 그리고 과거 다른 여

러 음악가들이 사용했던 송영 '솔리 데오 글로리아'("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가 아마도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배 음악을 인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조금 확장하면 될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이 자리에 모인 믿음의 공동체의 예배를 위해."  
C. 마이클 환(C. Michael Hawn): 남감리교대학교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교회음악 교수

# 주일 학교 교육 전도사를 모십니다

## 1. 주일 학교 교육 전도사

- 기독교 대학이나 신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을 하신 분
- 교사들을 지도해주실 분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서 의사소통이 가능하신 분)
-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서 설교를 하실 수 있는 분
- 주일학교 학생들을 향한 사랑이 넘치시는 분

뜻이 있으신 분들은 이메일(lapc2@sbcglobal.net)이나 전화(323-954-8846)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로스앤젤레스장로교회 (Los Angeles Presbyterian Church)

# 영성칼럼

## 죽대없어 아쉽게 끝난 아론

이희녕 사모 (프린스턴한인교회)

앞장서 두드러진 지도자 뒤엔 반드시 돕는 동역하는 보조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아론은 어떤 동역자였나요? 아론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수히 보았어도 코앞에 닥친 스트레스에 약하여 누구든 목소리가 큰 자들에게 죽대 없이 필요에 따라 얼굴을 바꾸는 인물입니다. 비굴한 노예근성으로 말만 무성하고 도무지 무분별하고 손발을 맞추지 못하여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자가 모세의 제일 측근으로 광야교회의 동역자였습니다. 모세가 어찌 하나님께만 얽드리지 않을 수가 있었겠는가?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아벨레 전쟁 때는 모세가 기도해야 이김을 보고 죽기로 저의 손을 제대로 들어주고 모세가 손들고 중보토록 열심히 도왔습니다. 그러던 저가 노도처럼 난리치는 백성들이 무서워 잠시 모세가 쉽게 명 받으며 간 새 금송아지를 앞장서서 만들고 백성들이 광란의 잔치를 벌이도록 조장하는 여처구니없는 자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자가 요직에 앉으면 정말 많은 백성들을 구렁텅이에 빠뜨립니다. 진정으로 백성들을 위하기보다 저들의 요구에 끌려 다니며 아부하는 사이비입니다.

직분을 망용하는 것 보며 자라 자녀들이 신성한 제사장 직무를 제대로 이해할 리가 없습니다. 제사의 심각성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독주에 취해 잘못된 불을 여호와께 드리다 즉석에서 자녀들이 여호와와 불에 타 죽었으니 직분의 신성함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죄 값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버리지 않고 자손대대로 거룩한 제사장직을 맡기십니다. 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직분의 심각성을 정립해야 하기에 하나님은 두 아들을 죽이시는 극단의 카드로 그 가족을 대체제사장직에 맞도록 꺾으셔서 사용하십니다. 동생이 공인임을 잊고 모세의 리더십에게 도전해 중대한 가나안 임성의 길에 걸림돌 노릇하던 미리암의 분노없이 내내 큰 목소리에 합세해 또 무분별하게 모세를 대적하던 미리암이 문둥병이 즉석에서 발하니 모세에게 예드려 "내 주여" 부르며 자비를 구하는 수모를 자처합니다.

그리마 물가에서 여전히 인쇄심의 한계에 화내는 모세를 진정시키기는커녕 함께 흥분하여 한 수 더 뜯니다. 하나님의 허락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대 가나안 임성의 영광은 달리고 대 제사장 직분이 아들에게 이양되고 겨우 쓰임받습니다. 안타까운 도중하차 하늘 집으로 불리웁니다. 그래도 여기 불었다 저기 불었다 도무지 이상한 인간을 당장 버리지 않고 그것도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섬기는 중차대한 대체제사장직을 맡기신 하나님입니다. 도무지 그것이 못되는 한심한 무자격자들일지라도 더 이상 도무지 사용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같이 치워야할 때까지 섬길 기회를 주시는 긍휼을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아들이 죽어도, 누이가 문둥병이 걸려도 직접 본인에게 불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인지? 아무리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한 심한 훈련을 해주셔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의 만남의 기회가 빗겨가다 종래는 끝까지 자리 보존조차 못하고 죽음을 맞는 무익한 종의 길의 본보기를 아론에게서 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차선이고 사역을 자신의 개인 사업 정도로 생각해 교인들의 여론에 눈치보고 휘말리며 사명을 놓친 요즘의 많은 사역자들의 모습을 아론에게서 보며 마음이 너무도 아픕니다. 오늘날 허다한 무리의 사역자들 가운데 아론의 길을 가고 있는 진정한 하늘의 사명이 빠진 이들이 태반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과 애통의 기도가 가슴을 찡니다. 과연 빛이나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뒤에 오는 제자 여호수아에게 제대로 사역을 이양하고 불리움을 받는 모세의 길을 끝까지 감당하는지? 참으로 선생들은 준비하나 세상을 인도해갈 섬기는 지도자를 키워내는 부모된 멘토 모세는 희귀한 시대입니다. 트리바에서 원망에 빠지는 자들 향해 감정에 앞서는 모세를 불붙여 앉히지 못하고 오히려 동조하니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호렘산에서 아들에게 제사장직을 물려주어 이양케 하니 저가 산꼭대기에서 죽습니다.

파위가 제일이라고 믿어 험센 자에게 불어서 아부하는 반대인생이었지만 그래도 위대한 지도자 모세 곁에서 대변도 하고 저의 힘겨운 손을 들어줄 수 있었던 조력자로 영광스런 대 제사장의 집안으로 아들에게 대대 물려도 줍니다. 부족한 능력 탓이 아니라 사명됨됨이의 용량이 따라오지 못해 얼치락뒤치락 넘어지길 밥 먹듯이 했지만 그래도 아론은 모자라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모세 곁을 나름대로는 지켰습니다. 하나님께 불리워진 후 백성들이 30일이나 호곡을 하고 알아준 나름대로 최대의 생애로 마감합니다. 스스로 도중하차 하지 않으면 부족하면 부족한만큼 최대한 사역의 기회를 주시며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하염없는 은혜를 아론에게서 보며 오히려 늘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는 모자라는 제 자신을 보며 큰 위로가 되고 부족한 이 모습 그대로 계속 써주시길 지원할 힘이 됩니다. 모자라다 꾸짖지도 버리지지도 않고 끝까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	\$100	유럽 .....	\$190
	캐나다 .....	\$110	남미 .....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	\$190	아프리카 .....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_____	목사 <input type="checkbox"/>
	영어: _____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꼭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 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 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목회서신

“본전치기 인생”



여승훈 목사

요즘은 사라졌지만 그 옛날 어린 시절 추억의 놀이 가운데 한가지 “구슬치기”가 기억난다. 약간 추운 겨울날 양지바르고 평평한 곳에서 동네 아이들이 구슬치기를 즐겼었다. 한참 구슬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한쪽으로 모여 앉아서 “잘잘이”를 한다. 잘잘이는 두 주먹 속에 구슬을 넣고 흔들 때 나는 소리 때문에 부쳐진 이름이다. 잘잘이를 하면 일반 구슬치기 할 때보다 판이 커진다. 가지고 있던 구슬을 다 잃어버리면 집으로 달려가서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구슬을 사와서 다시 한다. 어느 정도 잃으면 멈출 법도 한데 그렇지 않다. 이유는 최소한 “본전치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이다. 자, 여기서 “본전치기”라는 말의 의미는 이익과 손해가 평형을 이룬다는 뜻이다. 수치로 따지면 제로다. 쉽게 말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 잘잘이를 하다가 잃으면 본전생각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하

게 된다. 이것이 나중에 더 큰 잃음을 초래하게 되는데 말이다. 본전 생각에 인생 낭패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 필자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자신이 잃어버린 재물과 평판들로 인하여 오랜 세월 고통스럽게 지내왔다. 최소한 본전은 찾아야 된다는 생각에 사람들과의 얽히고 설킨 복잡한 문제들을 내려놓지 못한다. 항상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손해 보았다고 생각하고 모함을 당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이 그분 스스로 더욱 힘들어지게 하고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해마다 밀 20만 섬을 수확할 수 있는 농지를 유산으로 물려받은 부자였다. 그러나 엄청난 “부”를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과는 달리 톨스토이는 매우 간소한 삶을 살았다. 이로 인해 생김 아내와의 불화가 견딜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집을 떠난 며칠뒤 폐렴으

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톨스토이가 생애 마지막에 남긴 한마디 유언은 “하늘이 꾸미신 그대로 거두라”였다. 또한 톨스토이는 죽기 며칠 전인 1911년 1월 1일에 자신의 딸 사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글을 썼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이해할 뿐이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께 존재한다...” 톨스토이의 말을 되새기다 보면 “본전치기” 생각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부끄러워진다. 본전치기 생각의 오해의 뿌리를 톨스토이의 한마디 말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이해할 뿐이다.” 그렇다 하나님께 대한 부분적인 이해가 결국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가지게 되고 그 오해가 자신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모든 인생들이 가진 소유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구약성경 율기서의 핵심 인물로 등장하는 욥의 고백으로부터

터 들어보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욥1:21).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급해주는 분으로만 안다는 것이다. 그래서 간증집회에서 종종 듣게 되는 내용은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고 저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주시고 저것을 해결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런 간증의 내용이 잘못 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공급해주시는 하나님은 덤씩 인정을 하면서 걷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성경이 증거 하고 있는 하나님은 공급해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의 신학에 대해서 아느냐 모르느냐에 관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신학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이 현재 당신이 만나고 있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 실제로 효력이 나타날 만큼 적용이 되고 있느냐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고민이 되리라 본다. 결국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실제로 마음으로 체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을 포함한다. 진실로 하

나님의 주권 신학이 마음으로 경험 되어졌다면 하나님께서 걷어 가신 소유들에 대해서 받아들임이 일어날 것이다. 현재 일어난 일들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상황을 받아들임이 일어날 때 고난의 깊이는 터널을 빠져나갈 돌파구가 열리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일어난 상황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돌파구를 만들지 못해서 그 많은 시간 고통스러워하고 복수에 대한 약한 감정으로 용서하지 못하여 인생을 허송세월 낭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모든 소유의 유무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므로 고난의 깊이는 터널을 빠져나갈 돌파구가 열렸다면 이제는 그 돌파구를 통해서 마음껏 활개를 치면서 달려가게 하는 중요한 고백이 한 가지 있다. 이 또한 욥의 고백이다.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 없었으니 죽을 때에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라”(욥1:21). 무슨 말인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 없고 죽을 때에도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으면 수치로 따지면 제로다. 아무것도 없음의 상태다. 이것이 모든 인생들의 본전이다. 인생의 본전이 아무것도 없음인데 무엇을 손해보고 무엇을 잃어 버렸다고 말할 것인가? 문제는 손해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다. 인생의 본전이 원래 아무것도 없음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 잃어버린 것과 손해본 것에 대해서 본전치기 생각으로 인해 상처 받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방황하고 있다면 지금 현재 잃어버린 그 상태가 곧 본전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두움의 굴레로부터 속히 빠져 나와서 창공을 향해 마음껏 날개 짓을 하라. 만약 당신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다면 그 어떤 경우에도 당신의 인생은 잃어버리거나 손해본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라. 성경에서 매우 파워풀한 말씀 구절 하나를 소개해 보겠다. “비록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 할 것이다...” “Though God slay me, I will hope(trust) in Him...”(욥13:15). 아, 정말 얼마나 파워풀한 말씀인가? 죽이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공급해주신 무엇이 믿음의 고리를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인격 자체에 믿음의 고리를 걸기 때문이다. 인간의 생각으로 본전치기를 하려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진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없음의 본전의 자리를 돌아가서 마음으로 받아들여보라 그러면 영혼의 자유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국가 기도의 날 연합기도회 연다 제64회...5월7일 은혜한인교회에서

제64회 국가 기도의 날(National Day of Prayer) 연합기도회가 오는 5월 7일(목) 저녁 7시30분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열린다. 이를 위해 4월 21일(화) 오전 미기총(대표회장 한기홍 목사), 자마(대표 강순영 목사) 등이 은혜한인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인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마, OC교협, 미기총이 공동주관하는 국가를위한 기도의날 연합기도회를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이날 미 전역 4만2천여 곳에서 ‘주여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옵소서’란 주제로 기도회가 열릴 예정이다. 특히 급변 워싱턴DC 연방의회에서 열리는 국가 기도의 날에는 한인교회를 대표하여 한인 1세 가운데 최초로 한기홍 미기총 대표회장이 초청돼 참석하게 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마의 강순영 대표는 “한인들이 미국 사회의 주인 의식을 갖고 미국을 위해 기도하는 뜻 깊은 날이 되게 하자”고 말했다.

이날 기도회는 박성규 목사(주님세운교회), 박용덕 목사(남가주빛내리교회) 등이 기도를 인도하는 한편 정기정 목사(파이어크루세이드), 더글라스김 집사(HYM), 최성민 목사(은혜한인교회), 박용수 전도사(지저스홀릭) 등 청년사역자들도 참가하고 특히 가정사역단체인 CMF의 김철민 장로도 참여할 예정이다. 연합기도회는 자마, OC교협, 미기

총이 주관하며 OC한인목사회, OC원로목사회, OC여성목사회, OC평신도연합회, OC장로협의회, 미스바침야기도회, HYM, 남가주청년네트워크, KCCC, 미주성서화운동본부, CMF, Fire Crusade, 지저스홀릭무브먼트 등이 주최한다. 자세한 문의는 (323)933-4055, (714)446-6200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월드미션대학교 주최 제17회 학생뮤직페스티벌이 ‘The Passion of Baroque’라는 주제로 열렸다

‘The Passion of Baroque’ 주제로 월드미션대 음악과 주최 제17회 학생뮤직페스티벌

월드미션대학교 음악과 주최 제17회 학생뮤직페스티벌이 ‘The Passion of Baroque’ 주제로 4월 25일 저녁 7시30분 찬양교회(담임 김성대 목사)에서 열렸다. 송정명 총장은 인사말에서 “월드

미션대학교 음악과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준비했다. 그 열정이 아름다운 연주회로 승화될 것”이라 말하며 “오늘 연주회는 지역 사회에 우수한 음악문화를 알리고 섬기고자 마련이 됐다. 이 행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먼저 영광 받으시고 나아가 월드미션대학교가 땅 끝까지 주님의 제자 삼는 큰 비전과 사역에 밑거름이 되기를 소원한다”고 말했다.

연주회는 17-8세기 활동했던 프랑스의 Jean Philippe Rameau, 이탈리아의 Antonio Vivaldi와 Giovanni Battista Pergolesi, 독일의 Georg Philippe Telemanne와 Johann Sebastian Bach, 그리고 George Frideric Gandel의 작품을 월드미션대학교 음악과 학생들이 아름답게 연주했다. (박준호 기자)



LA기쁨의교회에서 열린 제62차 전도폭발 지도자 임상훈련에서 이희문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너희는...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LA기쁨의교회, 제62차 국제전도폭발 지도자 임상훈련

제62차 국제전도폭발 지도자 임상훈련이 LA기쁨의교회(담임 이희문 목사)에서 4월 20일부터 23일까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16:15)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수요일 오후 강의를 맡은 이희문 목사는 “전도를 해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복음을 주셨고,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주셨기 때문이다. 훗날 주님 앞에 모두 서게 될 터인데 주님께서 예수 믿는 자를 얼마나 만들었느냐고 물으실 것이다. 따라서 우리들을 통해 복음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전도는 교회를 살리는 것이며, 전도를 통해 성도들이 살아나게 된다. 또한 전도를 하려면 친절해야 하며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 때 직장 주님과 주변인들에게 인정받게 된다.

하지만 전도할 마음이 없게 되면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 가능성이 많아진다. 섬김 없이 교회행사에 참석하려 한다면 직장 주님과 주변인들에게 돌아오는 평판은 부정적인 것들이 될 것”이라 말하며 전도에 힘을 줄 것을 권했다.

전도폭발미주인본부 김용호 간사(워싱턴지주교회)는 “국제전도폭발 지도자 임상훈련은 매년 2차례 열리고 있다. 훈련은 목회자와 평신도지도자들에게 교육하고 현장전도를 통한 실습을 통해 복음의 열정가지고 제자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호 총무(워싱턴지주교회)는 “3년전 기쁨의 교회에서 임상훈련을 했다. 이 지역을 복음화 하고자 특히 지도자 임상훈련이기에 지도자들을 양육하고자 한다. 훈련받은 자들이 지역교회 돌아가서 교회가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는 사역”이라고 소개했다. 이번 지도자임상훈련은 14개 교회가 참여하고 있다. 63차는 율가를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에서 64차는 2016년 봄 베델한인교회에서 열리게 된다. (박준호 기자)



뉴욕장로연합회 28차 조찬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함께 일하며 하나님의 덕을 세우라 대뉴욕지구장로연합회 제28차 조찬기도회

대뉴욕지구장로연합회(회장 정권식 장로) 제 28차 조찬기도회가 4월 18일 오전 8시 후러싱제일교회에서 열렸다.

김영호 장로(이사장) 사회로 김인한 장로 기도, 이경수 집사 특별찬양, 설교 김중언 목사, 특별기도, 헌금기도 이계훈 장로, 축도 김중언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중언 목사(후러싱제일교회)는 고후5:1-2절을 본문으로 “함께 일하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첫째, 하나님의 은혜는 덕을 세우는 일과 둘째,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에 충성하고, 셋째,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와 찬양, 기도에 장로님들은 본이 되어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기도는 △제3차 다민족 선교대회를 위하여/박용기 장로 △후러싱제일교회를 축복하소서/정권식 장로 △회원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임병민 장로 제목으로 들렸다. 한편 조찬 후에 열린 임원회의에서는 제3차 다민족선교대회(8월 23일) 개최를 위해 논의했다. 대회준비위원장 이계훈 장로가 행사계획서를 보고하고 준비일정에 관한 토의 시간을 가졌다. (기사제공: 뉴욕장로연합회)

안나산 기도원 신임원장에 문석호 목사 이경숙 2대 원장 이어...5월 8일 원장 이취임식

메릴랜드 주 후레데릭(Frederick)에 위치한 안나산기도원(Anna Prayer Counseling, Inc. 원목 이상만 목사) 제 2대 원장에 문석호 목사가 취임한다. 지난 33년간 이 기도원을 이끌어왔던 제 1대 이경숙 원장이 퇴임을 하고, 문석호 목사(뉴욕효신장로교회 담임)가 제 2대 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새로운 영성훈

련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기도원 측은 밝혔다. 안나산 기도원은 1983년 몇몇 뜻 있는 신앙인들이 농장을 구입한 후, 꾸준히 시설변경과 교회당 건축 등을 거쳐 오늘날의 모습에 이르게 된 것으로, 워싱턴 근교 버지니아 주와 메릴랜드 주 지역 성도들과 교회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최근에는 약 100

여명이 동시에 식사를 할 수 있는 다목적 식당을 건축, 완공했다.안나산 기도원은 슈가로프 마운틴을 배경으로 넓은 대지(약160에이커: 약 20여만평) 위에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자랑하면서, 개인 기도를 원하는 성도들과 교회, 단체의 수련회 등 산상집회 장소로 이용돼왔다. 이번 신임원장의 취임을 기점으로 안나산기도원은 한인2세들의 리더십 훈련의 장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자연과 영성운동을 통한 회복과 치유의 사역이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 신임원장 문석호 목사는 “앞으로

기도원은 목회현장으로서의 교회와 영성회복의 장으로서의 기도원이 하나가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통한 인성과 영성의 회복으로 행복한 신앙과 건강한 교회운동을 이루어가면서, 동부지역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름답게 봉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원장 이취임 예배가 5월 8일(금) 저녁 7시 30분(6시 식사)에 동기도원에서 열린다. 안나산 기도원 주소: 7910 Peters Rd. Frederick, MD 21704 연락처: (434)444-0204 이상만



안나산기도원 베데스다 성전 목사. (기사제공: 안나산 기도원)

동부교계 게시판



제 9회 미동부 5개주 목사회 체육대회

제 9회 미동부 5개주 목사회 체육대회가 5월 4일(월) 메릴랜드 웨스턴 리지널 파크에서 열린다.

▲문의: (718)321-3124, (914)393-1450

담임목사 청빙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정관일 목사) 총회 소속 가든교회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이메일: newconcept@c21toronto.com 조준상 장로(416-449-7600)

퀸즈장로교회 R.U.B 찬양집회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중등부가 주관하는 R.U.B(Rise Up and Build) 찬양집회가 5월 16일(토) 오후 6시30분 본당에서 열린다.

▲문의: (718)886-4040

Happy In Jesus "만남" 공연

플랜플레이(대표 이종길)가 주최하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들의 3번째 이야기 Happy In Jesus "만남"이 뉴욕과 뉴저지에서 3회 공연을 갖는다.

▲문의: (516)978-7526



RCA 대뉴욕한인교협 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공부하는 한인교협 되도록.."

RCA 대뉴욕한인교협 신임회장 나영애 목사

RCA 대뉴욕지구한인교협회의회(AKRCA, 회장 이재봉 목사) 2015년 총회가 27일 오전 11시 포레스트 팍교회(담임 나영애 목사)에서 열렸다.

신임회장 나영애 목사는 "1982년부터 중고등부 25년 사역과 그 이후 목회하면서 여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 원망했는데 지난 수년 동안 나를 깨뜨려주셔서 여성으로 사용해주심에 감사한다.



CBSN 합창단 창단감사예배에서 합창단이 찬양하고 있다.

"상한 심령 치유되며 주님 역사 이루길"

뉴욕기독교방송 CBSN 합창단 창단감사예배

CBSN(뉴욕기독교방송) 합창단 창단감사예배가 4월 21일(화) 오후 8시,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있었다.

CBSN 합창단 단독 정관호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기도, 양민석 목사(CBSN 선교사/그레잇교회), 성경봉독 김요한 집사(CBSN 합창단 부단장), 설교 문석진 목사, CBSN 홍보영상 상영, 헌금기도 김준남 목사, 헌금송 박성하 목사, 축하특송 손영진 사모, 홍아름(바이올린), 김진환(비올라)의 연주, 뉴욕필그림선교부유단 최윤자 단장의 축하무용, 음악회, 축사 김홍은 목사 노성보 목사, 인사 이계용 집사, 축도 임병남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문석진 목사(CBSN 사장)는 "찬양으로 위기를 극복한 여호사밧" (대하20:21-22)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믿음과 순종의 사람인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의 침략위기를 기도로서 극복했음을 전하며, 우리도 어려운 환경에 내 힘으로 극복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 기도 고백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성령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며, 위기의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 찬송은 하나님의 기적을 부르시는 기도이니만큼 CBSN 합창단의 찬양을 통해 상한 심령이 치유되며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CBSN 합창단(지휘 장효중, 반주 배우현)은 그동안 갖고 있던 실력으로 "추가 축복하리라", "참기쁜 노래를 부르리", "주는 그리스도" 등 찬양을 통해 듣는 이들에게 감동을 안겨 주었다. (정리: 유원정 기자)

언더우드 선교사가 갔던 그 길을 갈 수 있는 RCA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나영애 목사 인도로 기도 조대형 목사, 성경봉독 임지윤 목사(막9:36-37), 말씀선포 이재봉 목사(유가든성신교회 담임), 축도 한재홍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재봉 목사는 "누가 크냐?" 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 제자들도 세상사람들과 똑같이 누가 크냐고 다투었다"며 "주님께 뽐낸 우리 목사들만이라도 의식의 패러다임 슈프트를 갖자"고 강조했다.

이목사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해야 할 일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나뭇길에 받은 사랑을 베풀도록 하나님 앞에서 모두 큰 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부 회의는 이재봉 목사 사회로 회원점명, 개회선언, 전회의록 낭독, 사업보고(유승례 목사), 회계보고(조대형 목사)에 이어 임원선출에 들어갔다.

회장선출은 전례대로 부회장 나영애 목사가 선임됐으며 부회장은 총무 유승례 목사가 선출됐다. 회장의 부회장 승계는 그대로 통과됐으나 총무의 부회장 승계는 가부간 투표로 실시됐다.

폐회기도는 김종덕 목사가 식사기도는 박준열 목사가 맡았다. 이날 안건으로 스닌터넷을 활용해 회의록 남기기, 광고로 △5월 18일 4개 교단 체육대회 △뉴브런스 워싱턴교회 한국어 강의 안내 △송홍용 목사의 미국 노회 소식 등이 발표됐다. (유원정 기자)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4월 월례모임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선교지 출발 흥영진 목사에 후원금 전달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4월 월례모임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전희수 목사)가 지난 23일 뉴욕를 기쁘고회에서(담임 김홍석 목사) 4월 월례모임을 가졌다. 일주일 후 에콰도르 선교사로 떠나는 흥영진 목사가 예배에서 말씀을 전했다.

예배는 김홍석 목사(국내선교국장) 인도로 기도 박이스라엘목사(서기), 설교 흥영진 목사(고문), 합심기도 권계덕 목사(회계), 광고 유상열 목사(부회장), 축도 신현택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흥영진 목사는 "택한 받은 종의 사랑"(행1:8)이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최근 방문한 한국에서 만난 목회자들과 교회에 대해 우려의 말을 전했다. 흥 목사는 "한국교회 80%가 성도가 20명 이하로 목회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한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목회자의 사명을 받은 것만도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한국교회에 성령의 불이 꺼지고 이단이 극성을 부리고 교인들조차 세상에 빠져있는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종들은 성령충만하며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내 마음과 생각이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원정 기자)

회장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해야 할 일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나뭇길에 받은 사랑을 베풀도록 하나님 앞에서 모두 큰 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폐무 방문은 8월 17일부터 22일 까지이며 티켓 구입시 필요한 개인 정보는 이찬양 간사에게 알려주도록 했다. 한편 일주일 후 에콰도르로 출발하는 흥영진 목사에 선교후원금을 전달했다. 회장 전희수 목사는 "차비 보조 정도로 미약하지만 기아대책이 더 활성화 돼서 많은 후원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원정 기자)

목회와 선교위한 스마트폰 무료강좌

씨존(대표 문석진 목사)이 주최하는 목회와 선교를 위한 스마트폰 무료강좌가 5월 21일(목)부터 4주간의 일정으로 뉴욕기독교방송국(163-07 Dept Rd. #B-2 Flushing)에서 열린다.

문석진 목사의 강의로 주제는 '크리스천의 스마트폰 활용법'이며 수강자격은 스마트폰을 소지한 완전초보자 또는 초급반을 이수한 자로서 스마트폰 활용에 미숙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각반 모두 4회에 걸쳐 실시하는 컴퓨터 강좌는 뉴욕기독교방송(CBSN)후원을 위해 열리며 수강료는 무료이고 후원비는 30달러 이상이다. ▲문의: (347)538-1587

강의는 안드로이드폰(삼성 갤럭시, LG폰, 모토로라)위주로 하며 아이폰 소지자는 청강할 수 있다. 주요강의 내용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찍기, 보내기(텍스트, 카톡), 앱 다운로드받기, 성경보기, 신문/TV/라디오/유튜브 보기, 주소로 지도 찾기, 이메일 사용하기 등이다.

강의일정은 36기(중급반) 5월 21일(목)-6월 11일(목), 37기 초급반 5월 22일(금)-6월 12일(금)과 38기 초급반 6월 1일(월)-22일(월)이다. 각반 모두 4회에 걸쳐 실시하는 컴퓨터 강좌는 뉴욕기독교방송(CBSN)후원을 위해 열리며 수강료는 무료이고 후원비는 30달러 이상이다.

▲문의: (347)538-1587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Includes contact info for various churches like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리빙스톤교회, etc.

# 남가주 신학교/크리스천스쿨 졸업식 잇달아

## 5월 2일 APU, 콩코디아부터 6월 20일 베데스다대학교까지

날짜	학 교	총 장	문 의
5/2	아주사피서픽대학교	존월레스 박사	(626)857-2200, (866)491-9083
	콩코디아대학교	커트쿠르거 박사	(800)229-1200, (949)854-8002
5/8	벵가드대학교	마이클빌스 박사	(714)556-3610
5/10	매스터스신학교	존맥아더 박사	1.800.CALL.TMS
5/16	남가주신학교	개리콕스 박사	(888)389-7244, (619)201-8999
	에반겔리아신학교	신현국 박사	(714)527-0691
	호프인터네셔널대학교	존테리 박사	(714)879-3901
5/19	클레어몬트신학교	제프리 칸 박사	(909)447-2502
5/22	바이올라대학교	베리코리 박사	(562)903-6000
5/22-24	채프먼대학교	제임스 도터 박사	(714)997-6815
5/23	미주총신대학교	김근수 박사	(213)487-1010
5/30	미주개혁대학교	크리스윤 박사	(213)736-6500
	웨스트민스터신학교	로버트 갓트리 박사	(888)480-8474, (760)480-8474
6/6	미주장신대학교	이상명 박사	(562)926-1023
	슈퍼드대학교	이성연 박사	(323)550-8888
	월드비전대학교	송정명 박사	(213)388-1000
6/8	그레이스미션대학교	김광신 박사	(714)515-5885
6/13	미성대학교	류종길 박사	(323)643-0301
	풀리신학교	마크레버튼 박사	(626)584-5244, (626)584-5574
	ITS	이승현 박사	(626)448-0023
6/20	베데스다대학교	송영준 박사	(714)517-1945

# 은혜가정사역국 주최 가정세미나 성황

## '회복된 부부, 회복된 가정' 주제

남가주지역 신학교 및 크리스천학교들의 2015년도 봄학기 학위 수여식이 5월 2일 아주사피서픽대학교와 콩코디아대학교를 시작으로 오는 6월 20일 베데스다대학교까지 실시된다. 다음은 남가주지역 신학교들과 크리스천대학교들의 2015년도 봄학기 학위 수여식 일정이다.

(박준호 기자)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가정사역국이 '회복된 부부, 회복된 가정'이라는 주제로 가정세미나를 18일 은혜한인교회 웨딩채플에서 개최했다.

세미나 강사로 강순영 목사(자마대표)와 강순자 사모가 '성경적 부부'라는 주제로, 박수웅 장로(자마해의디렉터/코스타 강사)와 박애자 권사가 '크리스천의 성생활'이라는 주제로, 산부인과 의사 유상박 장로(감사한인교회/CMF이사)와 유언이 권사가 'His Needs', 그리고 김철민 장로(CMF 대표)와 김명자 권사가 '결혼의 4원리'라는 주제로 각각 열린 강의를 인도했다.

(박준호 기자)

# 서부교계 게시판



## 더텐트 파킹랏 콘서트

더텐트(대표 다니엘랄 목사)가 주최하는 파킹랏 콘서트가 5월 2일(토) 오후 7시 가주영여학교 주차장에서 열린다. K-Trinity(베이스트 이병걸, 가수 바비걸, 재즈피아니스트 윤국형, 드러머 안병범) Live Concert와 월드비전대학교(WMU) 찬양사역과 학생들로 구성된 Jesus5(허지애, 김준, 박준영, 박선민, 이찬영, 기타리스트 제이엔디)가 공연한다. 공연에 앞서 6시부터 더텐트가 제공하는 핫도그와 커피와 음료 등을 맛볼 수 있다.

▲문의: (213)999-4909

## 제28회 발달장애인 "사랑의 마당축제"

제28회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마당축제"가 5월 2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3시까지 Whittier Narrows Recreation Area(Meadow)에서 열린다. Happy Village(KAVC미주한인봉사단)와 남가주 밀알선교단(이충희 목사) 공동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18세 이전에 장애가 확인된 발달장애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비는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1인 5달러(자원봉사자는 무료)

▲문의: (657)400-9570

## 풀리신학교 포럼

풀리신학교(총장 마크 레버튼 박사)는 2015 풀리포럼을 5월 1일(금) 오후 2시30분부터 4시50분까지 Pasadena의 Lake Avenue Church에서 '한인인민교회 상향에서의 평화와 정의'라는 주제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황진기 교수(KDMin 원장)가 패널토론 사회자로 나서며 패널로는 김기대 목사(뉴스M 편집장), 박상진 목사(SA지윤실 사무국장), 허현 목사(Mountain View Mennonite Church 공동담임목사)가 참여한다.

▲ 문의: (626)584-5244



싸우스베이한인교회에서 열린 춘계부흥회에서 강사로 나선 이은수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은혜가정사역국 주최 가정세미나가 '회복된 부부, 회복된 가정'이라는 주제로 은혜한인교회 웨딩채플에서 열렸다



GMU주최 비영리단체 경영세미나에서 구자혁 교수가 강의하고 있다

# 설립 시 미션스테이트먼트 있어야

## 그레이스미션대학교 주최 비영리단체 경영세미나

그레이스미션대학교(GMU 총장 김광신 박사) 주최 비영리단체 경영세미나가 24일 오후 1시30분 본교 라이브러리 내 강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강의는 GMU 구자혁 교수가 담당했다.

구자혁 교수는 "사역자의 사역을 할 때 비영리단체에서 사역을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비영리단체에서 행정업무 보는데 잘 모르면 불이익 당하기도 하는데 업무과실로 인해 단체가 없어지기도 한다. 이 세미나는 이러한 과실을 예방하기 위해 그리고 비영리단체를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분들을 위해 마련됐다"

(박준호 기자)

# '크리스천의 아름다운 삶' 주제

## 싸우스베이한인교회 춘계부흥성회, 강사 이은수 목사

싸우스베이한인교회(담임 안대진 목사)는 '크리스천의 아름다운 삶'이라는 주제로 춘계부흥회를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이은수 목사(뉴욕 큰샘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개최했다.

본 교회 찬양팀의 경배와 찬양과 안대진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첫날 저녁집회는 김중용 장로가 기도했으며, 말씀찬양대가 찬양했다. 이어 이은수 목사가 '예수님 사랑의 부르심의 삶'(눅 5:1-10)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은수 목사는 "우리 인생이 변하기 어려운 건 10가지가 바뀌지 않아서 아닌 하나가 바뀌지 않아서"라고 지적했다. 이 목사는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고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위대하다고 해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말씀은 종이 아닌 글자일 뿐"이라 말하며 "말씀은 듣는데서 시작된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말씀이다. 그 말씀에 의지하게 되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박준호 기자)



소망소사이어티주최 137차 세미나가 ANC온누리교회에서 열렸다

#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죽음준비

## 소망소사이어티 137번째 교육세미나

미주 한인사회에 아름다운 삶과 마무리를 위해 죽음을 준비하고 계몽하는 소망 소사이어티의 137번째 교육 세미나가 지난 4월 11일 레이크 뷰 테라스에 위치한 ANC 온누리 교회(담임 유진소 목사)에서 열렸다.

2011년 찾아가는 세미나를 통해 소망의 사역을 알렸던 ANC 온누리 교회 시니어 모임의 두 번째 초청으로 함께한 소망교육세미나는 170여명의 참석자들과 함께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하기 위해 죽음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계몽과 교육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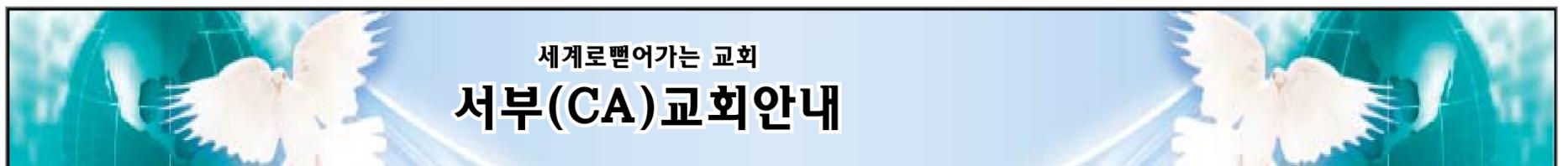
통해 평화롭고 존엄성 있는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주혜미 사역부장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간략하게 알아보는 차세대 방법을 통해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에 대해 강의하고 이어 박해수 교육부장은 죽음준비교육을 통해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의식이 분명할 때 자녀들과 충분히 자신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 나눌 것을 권했으며 긴급연락처 카드를 나눠주고 소망유언서를 미리 작성해두는 것이 가족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강조하며 카드작성에 대한 설명과 죽음준비 방법의 다양함을 소개했다.

유분자 이사장은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에 대해 말하며 연장자들이 준비하는 마무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100세를 살 수 있는 현대에서 죽음에 대한 현실을 직시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소망소사이어티)



<b>감사한인교회</b> 담임목사: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미대협(목회):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수-금 예배: 오후 7:30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www.thankingchurch.com Tel: (714)521-099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b>나성순복음교회</b>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전 11:30(영양)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수-금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lafgcusa@yahoo.com / www.lafgc.com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CA 90027	<b>나성영락교회</b> 담임목사: 김경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20 주일 3부예배: 오전 9:4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0 주일 5부예배: 오전 12:30 주일 6부예배: 오후 2:00(청년)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	<b>나성제일교회</b> 담임목사: 김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주일예배: 오후 4:00 Tel: (21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b>나침반교회</b>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말씀묵상(월-금): 오전 5:30 영어예배: 오전 6:30 EM, 대학부: 오후 11:3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		
<b>남가주든든교회</b>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EM): 오후 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A, CA 90026 Lksoldrock@gmail.com	<b>남가주리더교회</b>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목요 예배: 오후 7:00 새 예배: 오전 6:00(월-토) www.scrdm.org Tel: (213)215-8263, Fax: (213)977-1183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16	<b>남가주사망교회</b>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침례교 예배: 오후 1:20 영어예배 (영소-KDC, 침례교(월-토))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7-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b>대흥장로교회</b>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 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hpc.org	<b>등용교회</b> 담임목사: 김상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Tel: (213)483-6625, Fax: (213)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17 www.egkpc.org	<b>디아스포라선교회</b>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 Tel: (213)559-7728 (전혀 경음),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FB LA, CA 90033	<b>드림교회</b> 담임목사: 이성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영어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새벽 5:30(월-토) Tel: (626)793-0880, 0200 Fax: (626)793-6412 1305 E. Colorado Rd, Pasadena, CA 91106
<b>미주양곡교회</b>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대일)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b>미주평안교회</b>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2:00(대일목회))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www.mpcia.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16	<b>빛과 소금의 교회</b>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오전 6:00(토) Tel: (310)749-0577 3521 Lomita Ave., Torrance CA 90505	<b>베델한인교회</b> 담임목사: 김한요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대일목회: 오후 1:00 영어예배: 오후 1:00(수요예배: 오후 7:30) Tel: (949)854-4010 / E-mail: belth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	<b>복음성로교회</b> 담임목사: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vd., La Habra, CA 90631	<b>세계소망교회</b>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H), 새벽(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b>요셉선교회</b> 담임목사: 정상호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저녁 7:30 금요 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301 S. Kingsley Dr, 2F-B L.A., CA 90020
<b>얼마인침례교회</b> 담임목사: 박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수요성경기도회: 오후 7:00 www.irvinechurch.com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b>월서크리스천교회</b> 담임목사: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대일목회)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주요절기예배: 오후 6:00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b>은혜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경침례: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00(토) 은혜성경침례: 365일 24시간 온 www.gracemc.com Tel: (714)448-6200, Fax: (714)448-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b>주님의영광교회</b>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경침례: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jcc.org	<b>좋은마음교회</b>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어예배: 오전 6:00(토) 중, 고, 청년부: 오후 7:30(토) www.samsungchurch.org Tel: (714)648-9289 Fax: (714)648-9284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66	<b>코너스톤교회</b>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cornestonechurch.org / e-mail: pastor@cornestone.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2	<b>토런스조은교회</b> 담임목사: 김바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청년) 장미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www.torrence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 “8월쯤 한교연과 통합 선언 성사 기대”

이영훈 한기총 대표회장, “WEA에 2017년 한국 총회 검토 요청”

### 한교연 “이단 해결엔 가능”

이영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은 21일 “오는 8월쯤 한국교회연합(한교연)과의 통합 선언이 성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총회를 2017년 10월 한국에서 개최할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 달라고 WEA측에 요청했다.

이 대표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기독교대한

하나님의성회(기하성) 여의도순복음 실행위원회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회장은 한교연과의 통합 의지를 적극 피력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현재 주요 교단들이 참여하는 이단검증특위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며 “5·6월 본격적인 검증 작업을 벌인 뒤 공청회를 갖고 7월까지 이단검증위원회를 마무리할 계획”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단재심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나는 8월쯤에는 한교연과 통합 선언까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양병희 한교연 대표회장은 국민 일보와 전화 통화에서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일이라면 환영할 일”이라며 “이단문제 등 장애물이 없어 진다면 얼마든지 (한기총과의) 통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기총 이단검증특위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합동·백석, 기독교한국침례회 등 9개 교단에 이단검증위원회를 요청한

을 명심해야 한다”며 동참을 호소했다.

홀리라이프,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건강한사회를위한한국민연대, 탈동성애인권포럼, 홀리교수포럼 등도 6월 9일 서울역, 홍대, 청계천 등에서 제2회 홀리라이프 페스티벌을 열고 홀리영상콘텐츠, 홀리 문화광장축제, 홀리기도회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전국학부모연합, 에스더기도운동 등은 6월 13일 서울 주요 거리에서 ‘생명·윤리·가정을 위한 영광의 빛·글로벌 홀리 퍼레이드(포스터)’를 준비하고 있다. 행사에선 80여개 교교회와 시민단체들이 함께 거룩을 추구하는 국제연합단체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 대표는 “우리는 어느 때보다 동성애와 치

상대다. 이 가운데 예장 고신과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등을 제외한 7개 교단이 파송에 응했거나 검증위원 선정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이 대표회장은 “지난 20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이강평 한기총 명예회장과 함께 지난 1월 취임한 에프라인 M 텐데로 WEA 신임 총무를 만났다”면서 ““지난해 개최하지 못한 WEA 한국 총회를 종교개혁 500주년의 해인 2017년 10월에 개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WEA는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총회를 개최기로 했으나 한기총 안팎의 갈등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WEA는 이 대표회장의 제안과 관련해 올 하반기에 열리는 회의에서 안건으로 다룰 계획이다.

열한 영적 전쟁에 직면해 있다”며 “동성애축제 주최 측은 알몸 카파레이드를 하는데, 우리는 단정한 옷을 입고 생명과 윤리, 가정을 위해 피켓을 들고 거룩한 행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성애 반대 운동 단체들의 수난도 이어지고 있다. 예수재단,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회원들은 지난 4일 동성애 반대 예배 도중 갑자기 여러 개의 돌맹이가 날아와 몸을 피해야만 했다. 25일 오후 예배 중에도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들에게 예배용 앨범 2대를 빼앗겼다. 탈동성애인권기독교협의회는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제1회 탈동성애 저항자(동성애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리기도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동성애자들의 거친 항의 등으로 취소했다.

동성애 반대 운동 단체들의 수난도 이어지고 있다. 예수재단,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회원들은 지난 4일 동성애 반대 예배 도중 갑자기 여러 개의 돌맹이가 날아와 몸을 피해야만 했다. 25일 오후 예배 중에도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들에게 예배용 앨범 2대를 빼앗겼다. 탈동성애인권기독교협의회는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제1회 탈동성애 저항자(동성애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리기도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동성애자들의 거친 항의 등으로 취소했다.

동성애 반대 운동 단체들의 수난도 이어지고 있다. 예수재단,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회원들은 지난 4일 동성애 반대 예배 도중 갑자기 여러 개의 돌맹이가 날아와 몸을 피해야만 했다. 25일 오후 예배 중에도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들에게 예배용 앨범 2대를 빼앗겼다. 탈동성애인권기독교협의회는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제1회 탈동성애 저항자(동성애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리기도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동성애자들의 거친 항의 등으로 취소했다.

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이슬람 세력의 다양한 확장 방법에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끝을 맺었다.

한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이날 해양수산부와 함께 이슬람 국가로의 수산식품 수출 다변화 및 활성화를 위해 ‘수산식품 할랄인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원도 역시 2018평창동계올림픽 이전에 ‘할랄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이후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무슬림 시장을 겨냥한 상품 개발에 속속 나서고 있다.

이 운동의 일환으로 2013년 2000부, 2014년 6300부, 올해 1000부를 포함해 총 9300부를 하고교회에 기증했다.

권의현 사장은 “북한에 성경을 보낼 수 있는 시대에 대비해 성경 100만부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 성경을 탈북민부터 시작해 점차 북한 주민에게도 보낼 수 있도록 한국교회 성도들의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한성서공회는 1990년부터 통일일을 대비해 북한 동포에 100만부 성경 보내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 “동성애 축제 NO” 맞불 집회 연다

### 교계100여 시민단체 ‘홀리 페스티벌’ 개최 준비

친(親)동성애 단체들이 오는 6월 9일부터 2주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등에서 쿼어문화축제를 열기로 한 데 대해 교계와 시민단체들은 동성애 확산을 막기 위한 맞불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나라사랑&자녀사랑운동연대, 동성애반대운동연대는 25일 서울 송파구의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9일 서울광장 행사 준비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100여 단체와 연대해 서울광장을 동성애축제 장소로 허용한 박원순 서울시장을 규탄할 계획이다. 또

100명의 한국교회 목회자를 호명한 뒤 동성애 문제에 더 이상 침묵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집회를 앞두고 ‘시민인권헌장 뒤에 숨겨진 차별금지법-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우리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라는 제목의 소책자 80만권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나라사랑&자녀사랑운동연대 조직위원장 송춘길 목사는 “불을 끄는 책임이 방화범에 있지 않고 소방서에 있듯, 한국사회의 동성애 장권을 저지하는 책임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기독교 교회에 있다는 것

## “할랄 식품 정부지원 중단하라”

### 한기총 성명서, 상업적 측면만 강조 심각한 부작용 초래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2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슬람의 할랄식품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기총은 “최근 대통령의 중동 순방 후, 국내업계의 할랄식품 산업진출에 대해 관계 부처의 지원 대책이 발표되고 있다”며 “음식과 관련해 상업적인 측면만 강조돼 접근하다보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할랄’은 아랍어로 ‘허용된’이란

뜻으로, 이슬람법에 의해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된 식품을 ‘할랄식품’이라 부르고 있다. 한기총은 “할랄식품은 음식에 이미 이슬람 문화와 정신이 내포돼 있으며,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에게는 할랄식품을 먹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한기총은 할랄을 사실상 무슬림의 포교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기총은 “무슬림들은 세계적으로 전락을 세우 포교활동을 하고 있으며, 유럽은 이미 상당부분 무슬림화 돼있다”며 “이들은 결집력을 가지

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안 등을 통과시키도록 강요하며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불과 몇 년 전, 이슬람체권과 관련한 수쿠크법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한기총을 비롯한 교계에서 이를 강력히 저지하여 무산시킨 바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한기총은 이어 “할랄식품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중단하고, 진흥 중인 사업을 재고할 것”을 요구했다. 또 “기업들이 이윤창출을 위해서 다양하게 사업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 없었지만 정부가 나서서 이슬람 문화와 정신을 따르며, 사업을 유도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뜻을 밝혔다. 성명서는 “한기총은 할랄식품에 대해서 예외주의

## 북한 이탈주민에 성경 1000부 제공

### 대한성서공회, 100만부 보내기 운동 일환

대한성서공회(사장 권의현)는 북한을 탈출해 경기도 안성 하나원에서 한국 사회 적응훈련을 받고 있는 탈북민들에게 성경 1000부를 기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하나원에 있는 하나교회(황문구 목사)에 출석하는 탈북민들로, 대부분 처음으로 자기 성경책을 갖게 됐다.

기증예배에서 성경을 받아든 한

탈북민은 “내가 성경책을 갖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고 감격해했다. 또 다른 탈북민은 “이 성경을 평생 지니고 다니며 그 안의 말씀을 되새기겠다”면서 “한 구절씩 매일 성경읽기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황문규 목사는 “대한성서공회를 통해 탈북민들에게 성서를 기증해

## “21세기 해설·한영 찬송가, 사회·예장에 출판 독점권” 대법원 판결

대법원이 대한기독교서회(서회) 및 예장총연합회(예장)에 21세기 찬송가(해설 및 한영 찬송가) 독점 출판권이 있다고 인정했다. 21세기 찬송가를 펴낸 (재)한국찬송가공회(법인회)는 이를 부인하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법원 공회가 서회와 예장을 상대로 “해설 및 한영 찬송가의 출판을 금지해 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먼저 법원 공회와 사회·예장의 출판권 설정계약 기간(3년)이 종료됐는지에 대해 “계약서상 계약을 파기할 만한 상호 하자 없고, 한국찬송가공회가 통일찬송가를 제작한 이래 21세기 찬송가 제작에 이르기까지 사회·예장에

만 출판권을 부여해왔던 점 등을 감안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설 및 한영 찬송가’가 일반 찬송가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포함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사회와 예장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해설 및 한영 찬송가’ 출판을 허락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법원 공회 측이 21세기 찬송가를 사회·예장에서만 출판한다는 합의를 무시하고 일반 출판사에도 출판을 허용하면서 시작됐다. 법원 공회 측이 2007년 ‘해설 및 한영 찬송가’는 일반 찬송가와 다르다며 일반 출판사에 출판을 허락하자 사회·예장은 출판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법원은 가처분 이의신청, 가처분 항고, 가처분 재항고 등 모든 재판에서 사회·예장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법원 공회 측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서회·예장이 승소했지만 2010년 7월 2심에서는 “서회·예장은 2007년 7월 21세기 찬송가에 대해 3년간 출판계약을 했는데, 계약기간 3년이 경과됐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이번 판결은 이 사건 상고심이다.

이번 판결은 일반 찬송가의 출판권을 다루는 2심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1세기 찬송가는 일반 찬송가와 ‘해설 및 한영 찬송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일반 찬송가 관련 재판은 다음달 7월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1심에서는 서회·예장이 패소했다.

서진한 사회 사장은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일반 찬송가의 출판권이 사회·예장에 있다는 취지로 판시했기 때문에 다음달 선고되는 재판에서는 1심과 달리 승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신천지 교주인데 그냥 ‘노인’

### 이만희 근황 언론사 기자 양성 폭로

이단 신천지에수교증거장악성전(신천지)에서 정보통신부 정보과장을 지냈던 간부가 “신천지가 기자를 양성해 신문에 투입한다”고 증언했다.

전 신천지 정보통신부 정보과장인 장만석씨는 지난 18일 CBS에서 방영한 특집좌담 ‘관찰보고서-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에 출연해 이단 신천지의 여론 조작 실상을 고발했다.

장씨는 현재 신천지를 탈퇴했지만 신천지 신도였을 당시, 전 신천지 정보통신부 정보과장과 언론과장, 홍보부 대외섭외과장, 언론홍보팀장 등 신천지 내부 홍보계통 요직을 두루 거쳤다.

장씨는 좌담회에서 신천지가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해 기자들을 양성하고 언론사에도 침투시킨다고 폭로했다.

그는 “신천지 안에 있는 청년들

## 서울시교육청, 1300여 초·중·고교에 공문 학칙에 학생인권조례 반영 요구 논란

서울시교육청이 시내 1300여개 초·중·고교에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취지에 맞게 학교규칙을 제·개정하라고 독촉하고 있는 것으로 23일 밝혀졌다. 교계와 시민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밀어붙인 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의 학칙 제·개정을 압박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발송한 공문에서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취지와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 학칙이 제·개정되도록 유의해 주기 바란다”는 지침을 전달했다. 공문에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등 7개 관련 법령과 서류가 첨부됐다.

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이 같은 공문을 내려보낸 것은 2012년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된 뒤 처음이다. 주요 정비사항은 학생체벌 금지 및 훈육·훈계 규정, 임신·출산·이성교제 등 학습권 침해와 관계되는 규정, 단속 위주의 교문지도 지양 등이다. 시 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학칙 등에 대한 자체 점검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별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규적이 있는지 점검한 뒤 문턱이 있는 규정은 개정하거나 새로 제정토록 권고했다”면서 “점검 및 개정 결과를 제출받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재차 제·개정을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제정 당시 사회적 합의나 충분한 논의도 없이 차별금지 사유로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동성애)’ ‘성별 정체성(트랜스젠더)’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일반적으로 적시해 교계와 시민단체의 강한 반

발을 불러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공문을 보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임신·출산·이성교제 등을 이유로 퇴학, 전학, 자퇴권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학습권 침해를 유발하는 학칙을 개정토록 요청하는 공문을 각 교육청에 보냈을 뿐”이라며 “학생인권조례는 언급한 적이 없고, 교육부는 오히려 이 조례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학부모들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칙을 제·개정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차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 유순언어머니회, 교육재정감시센터 등 7개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관내 초·중·고교에 임신·출산 등과 관련한 학칙 제·개정의 의견수렴을 지시하고 보고까지 하게 했다”며 임신·출산 조장 우려가 있는 지침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학생인권조례에는 동성애, 성소수자, 임신·출산,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에 따른 차별금지 등 독소조항이 많다”면서 “시민단체와 교육부 등의 반대에 부딪히자 중·고교는 물론 초등학교까지 학칙 보호라는 탈을 씌워 학칙을 제·개정토록 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교회연론회 대변인 이억주 목사는 “성 혼란과 동성애 조장, 청소년 임신·출산 조장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최대한 반영해 학칙을 제·개정하라고 일선학교에 주문한 것은 건전한 시민들의 양식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교육부, 인가기준 완화 필요” 한목소리

### 미션스쿨 이어 기독교대안학교마저 ‘취침’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소장 박상진 장신대 교수)는 23일 서울 광진구 장로회신학대 세계교회협력센터에서 기독교대안학교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기독교학교를 위한 한국교회 연대’ 창립을 위한 모임을 개최했다. 이 모임은 정부의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규제로 인해 기독교대안학교가 직면한 문제를 교회와 연합해 대처하자는 취지로 열렸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10일 ‘전국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미인가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해 ‘인가 유도’ 등 시정 조치 및 폐쇄 압박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는 시설 기준을 제시하고 충족하지 못하는 대안학교의 폐지를 전제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의 등록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대안학교들의 반발로 백지화된 상태다. 현재 국내 기독교대안학교 169곳 중 인가를 받은 곳은 15%에 불과하다.

‘기독교대안학교를 위한 한국교회 연대 및 정책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박상진 교수는 “정부

제재는 종교교육의 제한으로 귀결된다”며 “정부는 미션스쿨에 이어 기독교대안학교까지 종교교육의 자유를 규제하려 하고 이는 향후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05년 ‘초·중등교육법 60조 3’을 신설해 대안학교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07년 시행령인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대안학교에 법적 지위 부여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박 교수는 “인가를 받으면 학력 인정과 재정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교육부의 간섭을 피할 수 없기에 기독교 대안학교로서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인가 대안학교는 정규학교와는 다른 교육과정과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스쿨존과 학교정화구역 지정 등을 통한 학생 안전 지원이 어렵고, 학력을 인정받지 못한 학생들이 대안교육과 검정고시교육의 이중적 부담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 당국의 인가를 받아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동시에 기독교적 대안성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율성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기독교대안학교 진영의 노력’에 대해 발표한 경기도대안학교연합회 정회원(밀양대리학교 교장) 회장은 “일정 수의 학생만 확보되면 자유롭게 대안학교를 설립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며 “대안교육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현재 대안학교 설립 운영 규정에는 ‘도시공원 녹지 또는 국·공립체육시설 등 체육장대용시설을 임대하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일반 공원이거나 시설 운동시설을 확보한 대안학교에도 인가를 허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초·중등교사 자격을 가진 교원의 비율을 현행 70%에서 50%로 낮추고, 미인가 대안학교에 부가직제와 상숙제, 증여세 등에 대한 면세 혜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선교의 창 (30)

선교적 측면에서 본 수정교회(Chrystal Cathedral)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수필가)



지난 반세기를 품어왔던 로버트 쉘러 목사가 급년 4월 2일 별세했다. 향년 88세였다. 그는 미국의 메가 처치 가운데 하나였던 수정교회의 창립자이자 유명한 TV설교가였다. 인간은 누구나 언젠가는 죽을 앞에 서야 한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비록 사람이기도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남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와 함께 수정교회 역시 사라졌는데 유감이 있다. 미국교회의 자존심이자 예술적 가치가 큰 예배당이 어찌하여 파괴되고 말았는가? 그것도 건축한지 불과 32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것은 무슨 연고인가? 이는 비단 수많은 교회 중 하나지만 가벼이 넘길 수 없다.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에서 비극을 배우지 못한

우리로 지은 이 세계적인 건물은 건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물론 불신자들이라도 구경하고 싶은 관광 명소가 되었다. 그러나 2006년 쉘러 목사가 은퇴한 후 교회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기 시작했고 2010년 10월 5,500만 달러의 빚을 갚지 못해 파산신청을 했다. 결국 수정교회 건물과 캠퍼스의 소유권은 2012년 6월 9일 천주교 오렌지카운티 교구로 넘어갔다. 5,750만 달러에 팔린 것이다. 20세기 후반 미국 개신교의 자존심이자 얼굴이며 세계교회의 선두에 섰던 수정교회는 이렇게 막을 내렸다.

5. 2. 수정교회의 몰락 원인

사하심을 기대할 수는 없다. 둘째는 교회세습과 리더십 이양이다. 쉘러 목사는 만80세까지 담임목사로 있다가 2006년 은퇴하면서 그의 아들인 로버트 안토니 쉘러(Robert A. Schuller) 목사에게 담임을 인계하였다. 그러나 완전한 은퇴라고 볼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교회 조직에서 운영실권을 가지고 있는 '이사회의 이사장'으로서 교회의 모든 대사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비록 그의 아들인 안토니 쉘러 목사가 2년 간 담임을 맡았지만 그의 영역은 제한적이었다. 그는 교회개혁을 둘러싸고 그 아버지가 중심인 이사회와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결국 2008년 쉘러 목사는 아들과의 갈등이 심해지자 그를 담임목사

차세대를 예수님의 제자로 키우는 일에 집중했다더라면 오늘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를 교회의 중요 사역과 결정권 자리에 나오게 해야 한다. 그간 수정교회는 쉘러 목사 세대가 교회안내, 주차관리, 서점봉사, 예배주관, 이사회 등 교회 행사를 거반 주관했다. 젊은이들이 보이지 않았다. 사람이 보호받지 못하고 활동이 없으며 결정권 자리에 서지 못할 때 결코 성장할 수가 없다. 화려 개혁교회를 둘러싸고 그 아버지가 중심인 이사회와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결국 2008년 쉘러 목사는 아들과의 갈등이 심해지자 그를 담임목사

사람중심의 사조는 유행이며 이것은 안개처럼 사라지게 되어 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사람이 설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

다면 어리석은 것이라 했다. 시대적으로 어려운 때에 우리 기독교회는 타산지적으로 살아야 한다. 이를 선교적 시각으로 분석하며 제2, 제3의 이런 교회가 나오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1. 수정교회의 역사

3. 로버트 쉘러(Rev. Robert Schuller) 목사는 1955년 자동차 영화관 스낵가게 지붕에서 Drive-in-church(교회)를 시작했다. 성공적인 사건의 힘을 강조한 그의 설교는 많은 호응을 얻으면서 TV 설교가로 명성을 날리기 시작했다. "권능의 시간(Hour of Power)"이라는 그의 설교 방송은 한 때 130만 명이 년 예산이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대형교회로 성장했다. 이를 계기로 쉘러 목사는 교회 건물을 우리로 짓도록 했고 이름을 수정교회(Crystal Cathedral)로 명명했다. 교회는 1,800만 달러를 들여 3년간의 공사 끝에 1980년 완공되었다.

필립 존슨

이 설계한 중앙 성전에는 사각형의 유리 1만664장으로 볼트 하나 없이 특수 접착제로 부착했으며 건물은 8.0강도의 지진이 와도 끄떡없게 제작되었다. 내부에는 세계 최대의 파이프 오르간 중 하나가 설치되었다. 바닥을 제외한 벽과 지붕 전체를

수정교회의 주된 몰락 원인은 무엇인가? 첫째는 신학적인 요인이다. 그는 적극적인 사고(Positive thinking)의 원조라 할 수 있는 노만 빈센트 필 목사의 계승자이며 그 승을 뛰어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세상에 지치고 소망 없는 사람들이 교회까지 와서 죄와 십자가의 설교로 놀림을 받아야 되는가에 회의론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이 위로와 힘을 얻도록 성공한 영화배우, 운동선수, 미술가, 음악가, 사업가, 군인, 소설가, 노벨상 수상자 등 각 분야에서 최고의 달성한 명사들을 간증자로 세웠다.

설교

의 내용도 긍정적 사고로서 야망을 이루라는 것이 중심이었다. 그리고 매년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때는 생동감 있는 호화무대를 만들어 사람들의 찬사를 받았다. 이에 존 파이프, 존 맥아더 등 개혁주의 목회자들은 입장을 달리 했다. 쉘러 목사가 외치는 "성공"의 의미는 성경과 다르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기독교의 본질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비록 인간이 듣기 거북해 해도 교회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려 오신 예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기독교의 핵심진리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다. 복음의 절대성이 가려진 선포는 인간의 입맛에 맞는 지는 몰라도 성령의 역

직에서 해임시킨 후 그의 장녀 Sheila Schuller Colemam을 후임자로 세웠다. 이렇게 가족 간의 내분은 교회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마침내 쉘러 목사는 2010년 7월, 만 83세가 되어서야 공식 은퇴를 선언했다. 그러나 이 때는 이미 교회 형편이 회생불가 상태로 곤두박질치고 있었다. 이로써 쉘러 목사의 50년간의 그 '빛나던' 목회사역은 과도한 욕심으로 인해 불명예스럽게 끝이 나고 말았다. 참으로 애석하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왜 세습을 하는가? 피뎀 흘러 일군 업적을 아무한테나 줄 수 없다는 소유욕과 나아가 은퇴 후에도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이다. 재벌들의 특징이 그러하다. 하지만 교회는 이익집단이 아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 성령께서 운행하신 곳이다. 사람이 설치하면 그리스도의 주권적 통치가 나타나지 않는다.

셋째는 수직선교를 등한시 한 것이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다.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전투함이어야 한다. 가진 자들끼리 쾌적한 자리에서 공연을 관람하며 여유작작(餘裕綽綽)할 때가 아니다. 선교적(선교적으로) 수평적 그리고 수직적 선교에 힘을 쏟아야 한다. 특히 자녀 세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은 적당히 해서 될 수 없다. 만약 크리스털교회가 최고급 건물, 사회적 명사, 최고의 음악, 웅장한 행사, 화려한 가운데 대신

하는가?

맺는 말

쉘러 목사는 복음주의 교단인 미국개혁교회(Reformed Church in America) 목사로서 평생 한 길을 걸어왔다. 그는 어떤 설교자처럼 재산이나 이성문제로 실족하지 않았다. 적극적인 사고를 강조했다. 누구도 그를 교리적으로 문제 삼지 않았다. 그는 한 시대를 이끈 영적인 거장이었으며 교회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쳤다. 하지만 역사는 냉엄하며 결과론적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본 교회의 몰락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다. 이미 실패한 바처럼 신학적 기초에서 복음의 절대성보다는 상대적 인간성공에 집착한 면이 강했다. 또한 교회세습과 리더십의 이양 면에서 인간의 탐심이 드러났다. 무엇보다 차세대를 양육하고 그들을 세워 교회 전면의 봉사나 결정권 자리에 나오게 하지 못했다.

이제 기독교회는 크리스털교회를 아픈 마음으로 거울삼아 더욱 건강한 교회로서 발돋움해야 한다. 그것은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로 전환하는 것이다. 지금도 옛 수정교회는 미국교회를 대변하듯 햇빛에 찬란히 반짝거리고 있다. 속이 비어있는 채로!

이메일: jrsong007@hanmail.net

선교 펴기

코스타리카

한 해가 시작된 지도 어느덧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급한 한 해는 시작하는 첫 달부터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뉴욕의 한인교회와 후원해주신 의료 진료 버스가 도착함으로써 인하여 운행준비를 위한 여러 준비과정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되었고 또 그와 함께 한인교회 단기선교팀의 방문으로 인하여 많은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Purral교회와 Squirres 지역에서 의료사역, 어린이대상로 VBS사역, 미용사역 등을 했습니다.

특히의료사역에는 치과, 내과, 소아과, 한의, 안경사역 등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아름다운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번 사역들을 통하여 이곳 현지인 분들에게나 단기선교팀 모두가 많은 은혜를 받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특히 단기선교가 끝난 후, 가장 마음에 와 닿는 일 중 하나는, 이번 단기팀과 함께 운전기사로 다니셨던 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기회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역이 끝난 후 운전기사분이 저에게 찾아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왜 우리들을 이러한 일들을, 그것도 아무런 대가도 없이 하느냐? 도대체 당신들의 정체가 무엇이었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섬기기 위해 이곳에 왔다는 것이 진실로 느껴진다"며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만 살아왔지만, 당신들을 보니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믿어진다. 앞으로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고려해 볼 것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받은 감동이 너무나도 크며 저에게 몇 번이고 찾아와, 이런 저런 상담과 함께 자비량으로 이동진료버스의 부품을 사다 갈아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번 사역을 통하여 섬기는 분들이나 섬김을 받는 분들 모두가 하나같이 많은 은혜를 받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Rio Azul교회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4면으로 계속)

Worldwide Church Directory. Header: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Grid of church listings with names, addresses, and contact info. Includes churches like Galilee, Denver, and various regional churches.





사모칼럼 // 회복된 사모, 행복한 시역



황순원 사모 (CMF사모사역원 원장)

11. 사모의 가정 가꾸기 (5)

지난번에 이어서 부부의 출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동시에 만드신 것 말고 남편을 먼저 만들고 그 후에 아내를 만드신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아내를 만드실 때 하필 남편의 갈비뼈 하나를 꺼내어 그것으로 아내를 만드셨을까요? 여기에는 또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아내의 출처는 남편의 갈비뼈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서부터 나온 존재임을 알 때 부부의 원리와 행복의 원칙을 아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대 가정이 붕괴하는 이유가 있다면 여성들의 권위와 위치를 찾자는 데서 오는 강력한 힘이 아내들로 하여금 사회로 뛰쳐나오게 하고 실력을 키워 남성들과 맞서서 대결하는 경향이 진행되고 있는데 있습니다. 그

정감을 줍니다. 현대 크리스천들의 신앙이 병들어 가는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옛날 초대교회 시절에는 이사를 가거나 부득이한 사정 아니고는 교회를 옮기는 일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이명증서를 갖고 다른 교회로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 옮기기를 음식점 옮기듯 자신의 기호대로 정하며 조금만 맘에 들지 않아도 옮기는 나쁜 버릇 때문에 목회자의 속은 속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말씀대로 양육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었지만 여기저기 옮기다 보면 소속감이 흔들려 버리게 되고 따라서 이성이 마비되며 판단능력이 흐려지게 되자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습관이 되고 맙니다. 이 모든 문제들의 주 원인은 가정의 문제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아내의 소속감의 만족도가 충족되지 못하고 남편은 가장으로서의 지배권이 충족되지 못하고 나니 교회에서 대리만족이라도 하려는 자세가 생기게 되며 교회의 작은 모임이나 소그룹에서 이런 증세들이 여실히 나오게 될 때 교회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덧붙여 생각해 본다면 자녀들의 문제까지 대두 되어 교회 안에 유스그룹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존경과 순종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실은 가정입니다. 엄마가 아버지께 하는 태도 속에서 존경의 모습과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사랑하는 모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랑을 사랑하는 방법을 익히게 됩니다. 본대로 배운 그대로 자녀들의

남편 먼저 만드신 하나님의 원리 알아야 부부행복원칙 알아  
사모교실은 '00의 아내 00' 정체성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

결과 아내들은 자기의 출처인 남편을 인정하지 않고 따라서 순종과 복종은 현실에서 푸대접을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드라마의 주인공들을 보십시오. 남편보다 훨씬 실력 있고 지혜롭게 나오다가 하면 그의 남편들은 하나같이 직장도 없고 하는 일마다 그릇 치는, 그래서 아내들의 속을 뒤집어 놓는 스토리로 이어가게 합니다. 그러다 하면 부부싸움이라도 할라치면 아내가 남편을 두들겨 패는 장면들이 흔하게 보여집니다. 이런 장면들을 자연스럽게 자녀들은 보면서 성장합니다. 그 결과 성인이 된 자녀들이 결혼을 두려워하고 적년기를 놓쳐 싱글아파트가 붐이 되는 현실입니다.

아내들은 자기의 출처인 갈비뼈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급변하는 문화 속에서도 변할 수 없는 진리는 고수해야 할 책임이 크리스천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강하고 실력있는 아내라 할지라도 그의 자리는 남편의 갈비뼈의 자리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속감입니다. 아내들에게는 여러 가지 욕구 중에 소속감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 남편들에게는 지배권이 있습니다. 남편은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장을 잘 다스릴 때 지배권이 채워집니다. 이를 위해 돕는 배필로서 만들어진 아내들은 그의 책임을 잘 감당하도록 뒤에서 도울 때 소속감이 충족이 되는 것입니다. 소속감이란 결국 아내들을 구속하거나 기분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 옛날 유교사상에 적어서 살던 부모님 시절의 소속감의 개념과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속감은 채워질 때 안정감을 느끼게 합니다.

필자는 20여년 전에 가장인 남편을 사별한 이후 소속감의 결여로 인해 정서가 마구 흔들렸습니다. 따라서 이성이 마비되고 판단능력이 흐려지게 되자 매사에 일을 그르치게 되며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적지 않게 컸습니다. 누구에게 속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안

노리속에 들어간 존경과 순종의 단어는 힘들게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소속감에는 또 다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부부는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의 모든 것은 아내의 것도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이성이 특권입니다. 경제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딴 주머니를 차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남편에게 도박이 심하게 있다든가 알코올중독증세로 조절이 불가능한 일종의 핸드캡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부부는 경제의 누림이 하나되어야 합니다. 남편의 수입이 곧 아내의 수입이며 아내의 수입도 마찬가지로 남편의 소유가 되어야 합니다.

부부가 하나되기를 노력하다 보면 시간이 흐르고 함께 늙어갈수록 마음도 하나가 되어갈 수 있습니다. 언어사용방법도 서로 비슷해집니다. 아내들의 소속감에 대한 잘못된 견해는 시정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또한 아가서로 표현되었듯이 우리는 주님께 속할 때 행복을 누릴 수 있으며 실제로 구원 얻은 성도들은 주님께 속하게 되었음을 날마다 인정하고 행복을 실제로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가서 2장16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6장3절에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첫 번째 감탄사를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이는 내 뼈중의 뼈요 살중의 살이니라" 창세기 2장을 인용하면서 부부의 원리 중에 아내의 출처를 강조하였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소속이 되어 있을 때 안전성이 유지됩니다. 심플들이 늘어나며 심플모임이 여기저기에서 생기는 이유와 목적도 이 소속감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16면으로 계속)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삼상7:8-11)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만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에서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참으로 오래간만에 감격적인 부흥회가 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서서히 가까이 다가옵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달려와 쉬지 말고 기도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 람 사무엘은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순수한 헌신을 다짐하는 온전한 번제

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분만 의지한 것입니다.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배와 기도 외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큰 무대를 열어 승리를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돌아와 헌신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블레셋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화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삼상7:12)

아무리 어렵고 위험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기도하는 곳에는 기적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늘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령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 오직 하나님 한분만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예배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에벤에셀(도움의 돌)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에벤에셀에는 아주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1)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감사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잘뎀어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분이 많습니다. 2)계속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렀다는 헌신의 다짐 표시입니다. 에벤에셀의 돌을 많이 세워야 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을 늘 감사하며 앞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살겠다는 헌신을 다짐하는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수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삼상7:13-14)

에벤에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우니까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는 다시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누가 막았나요? 여호와와 그의 손이 막았습니다. 진실한 헌신의 예배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위력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벤갈은 서쪽, 에그론과 가드는 동쪽 위쪽에 있는 성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빼앗겼던 성읍을 모두 다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까지도 화평을 누리

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고 하였는데,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여러 족속들 중에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족속이며 출애굽 후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시대에는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있을 때 우리의 모든 불평했던 관계까지도 해결해주시고 풀리지 않던 사람과의 문제도 다 풀어져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목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도!(삼상7:15-17)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그가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 "다스렸다"는 뜻은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서 종교적 정치적으로 모든 부분에 백성들을 감독하고 재판하고 백성들의 생활을 바르게 세우는 일을 담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는 날까지 다스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의 권위를 세워 주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리더의 모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을 두루 살렸

습니다. 교회 지도자의 성실한 모습입니다. 사무엘은 온 나라를 다스리면서도 개인 경건에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은혜가 되는 것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는 것"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고 개인 경건의 훈련을 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사무엘과 같은 신실한 일꾼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진정 성도들을 생각하며 경건에 힘쓰는 귀한 일꾼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금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삼상8:1-3)

오늘 본문은 신실한 성도들을 가장 당황스럽게 하는 장면 중에 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 자신을 보좌하기 위해서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더니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뇌물을 취하고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타락의 기사를 보지만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훌륭한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안타깝게 했

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의 본을 따르지 못할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인간은 철저히 하게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훌륭한 부모 밑에 자라도 본인들이 그 신앙을 따르지 않으면 타락할 수밖에 없는 부패한 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온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일찌라도 끝까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토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삼상8:3-6)

이제까지 자녀가 대를 이어 사사가 된 적이 없는데 사무엘은 아들들이 자신을 도와주기를 바라면서 라마로부터 80km이상 떨어진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왜곡되게 한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일생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3절과 4절 사이에 한글성경은 번역이 되지 않았지만, "그래서"라고 하는 "와우"접속사가

붙어있습니다. 아들들이 악행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이 장로들의 모임과 사무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사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미 왕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왕과 같은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신실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교회**

<p><b>금관교회</b>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동구 광우동 340-1(131-231)</p>	<p><b>든든한교회</b> 담임목사: 장항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오월야예배: 오후 9:00 Tel: (031)877-3389-49, Fax: (031)877-8382 (우)110-831 서울특별시 강서구 용두동 1670-1</p>	<p><b>로마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병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5: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2-8676(교우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p>	<p><b>새에덴교회</b>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2:3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젊은이를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p>	<p><b>성문교회</b>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3:30 새벽기도: 오전 5:00 새벽예배: 오전 6:30 Tel: (82)2-2648-318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2동 520 (142-808)</p>	<p><b>성실교회</b>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 (02)22-956-9998, Fax: 3927-1008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221-43 (142-073)</p>	<p><b>성일교회</b>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토요일은 쉰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유동 713-26호</p>
<p><b>수정교회</b>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82)32-58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4(404-270)</p>	<p><b>승동교회</b>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사택(02)389-2235 (110-290)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37 번지</p>	<p><b>시온소교회</b>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수지구 죽전동 419-2</p>	<p><b>신길교회</b> 담임목사: 이신웅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2-842-1968, 사택(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50-051)</p>	<p><b>신천교회</b> 담임목사: 송용결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 오전 5:00/6:00 Tel: (02)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양파구 백제교동로 17길 29(감일동) www.shincheon.org</p>	<p><b>신촌교회</b>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30 Tel: (82)2-786-6579, 사택(8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p>	<p><b>안암 제일교회</b> 담임목사: 조 윤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2:50 수요예배: 오후 7:30 심야기도회: 오후 8:30 서울 용인구 매곡동 146-7</p>
<p><b>양곡교회</b>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양곡구 월영로 415 www.yangkog.org</p>	<p><b>양성교회</b>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p>	<p><b>장위제일교회</b>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 오후 5:0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30 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631)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9-12</p>	<p><b>주안교회</b>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곡4동 294-10(1043-838)</p>	<p><b>창대교회</b>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448-23</p>	<p><b>청주주님의교회</b>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2:00 주일4부예배: 오전 4: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p>	<p><b>충신교회</b> 담임목사: 이준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p>

#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 “질”이 문제다!

## WSJ, 효과적 성공적 자녀교육 연구 결과 제시

설문조사에 따르면, 너나 할 것 없이 바쁜 요즘 부모들은 자녀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해 죄책감을 느낀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 미국 가정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다르다. 퓨 리서치에 의하면 1970년대 이후 아버들이 자녀와 보내는 시간은 거의 3배, 엄마들은 57% 늘었다. 요즘 엄마들의 71%가 직장을 가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놀라운 수치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렇게 늘어난 시간이 얼마만큼 긍정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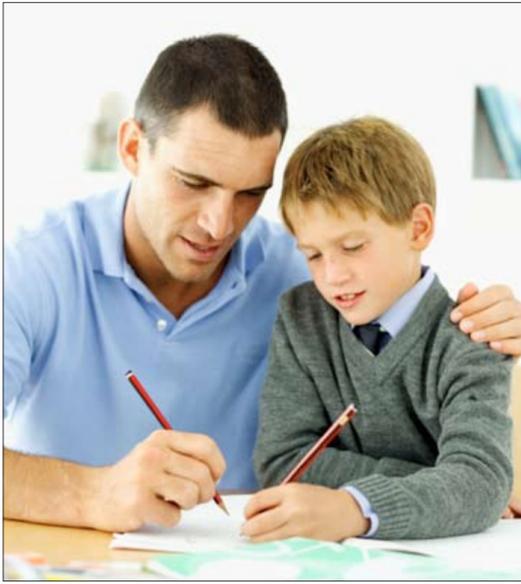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자녀와 함께 하는 가족 시간은 ‘같이 보내는 시간의 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연구결과들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다(The Right Way to Do Family Time: Research finds that quality, rather than quantity, counts most when it comes to spending time with your children).

지난달 ‘결혼과가족’ 저널에 실린 대규모 연구는 이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연구진은 3-11세 사이 아동 1,605명과 12-18세 청소년 778명의 시간일기와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특히 엄마와 자녀가 함께 한 시간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졌는지 여부를 관찰했다.

주저자인 멜리사 밀키 토론도대 사회학 교수는 결과에 놀라움을 표했다. 자녀의 학업성취도나 행동 혹은 정서적 웰빙과 엄마가 자녀와 함께 보낸 시간(단순히 주위에 있었던, 직접적으로 상호작용을 했던)의 양 사이에는 큰 관련이 없었던 것이다. 오히려 엄마의 교육수준, 가계소득, 가족구조 같은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 밀키 교수는 본 연구 결과가 부모와의 시간이 의미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번 연구는 가족들이 실제로 어떤 일을 함께 했는지(저녁을 같이 먹었다, 스포츠나 음악 이벤트를 같이 관람했다 등)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나온 연구에 의하

그렇다. 음악은 가족의 정체성을 구축하고 긍정적인 기억을 만드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음악 혹은 특정 곡에 대해 이야기하기만 해도 자녀의 웰빙이 증진되는 효과가 있다.

대화 유도하기  
‘행복한 가정의 비밀(The Secrets of Happy Families)’이란 책을 저술한 브루스 파일러는 ‘나쁜 일 좋은 일’ 게임으로 대화의 물꼬를 트라고 제안한다. 부모를 포함해 가족



### 함께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무엇을 같이 하는가가 중요 음악듣기 · 대화하기 · 숙제하기 · 여행하기 · 페이스북하기

면 부모와 “양질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학업성취도나 자존감을 높이는 등 아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소아·청소년 정신과의사인 게일 페르난데스는 “요즘 부모들은 자녀들의 성취도를 높이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아이와 일대일로 상호작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간과할 때가 있다”고 지적한다. 일대일 상호작용을 통해 아이의 존재가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워준다면, 아이는 자신감을 갖게 되고 삶을 살아가면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다음은 부모가 자녀와 양질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데 도움이 될 만한 활동들이다.

**음악 듣기**  
저널 ‘심리학 프론티어스’에 실린 연구는 가족이 함께 음악을 들으면 유대감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밝힌다. 특히 사춘기에 접어들어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10대 자녀의 경우엔 더욱

구성원 모두가 돌아가며 그날 있었던 안 좋은 일 하나와 좋은 일 하나를 말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부모는 문제가 생겼을 때도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알려주게 된다.

**숙제 예기하기**  
숙제는 이제 신개념 저녁식사로 불리게 됐다. 그날 해야 할 숙제를 저녁식사 시간이 채워지는 일이 하도 많아서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숙제를 하는 것은 (도중에 ‘빼빼션’을 타지만 않는다면)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경험이 될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 자녀의 경우 그들이 무엇을 읽는지, 좋아하는 수업은 무엇인지에 관심을 갖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한 방법이다. 아이가 학교나 친구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여행 떠나기**

레흐토 퍼듀대 교수는 여행이 가족 간의 결속을 단단히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새롭고 낯선 환경에 처하면 한 배를 탔다는 동지식이 생기기 때문”이다. 휴가지에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스키를 가르쳐 주는 등 자연스럽게 역할이 바뀌어 친밀함과 친숙함이 커진다. “여행 자체뿐 아니라 집에 돌아와서도 함께 한 기억이 유대감을 강화해준다.”

**페이스북 친구하기**  
저널 ‘사이버심리, 행동, 소셜네트워킹’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상에서 부모와 관계를 맺은 청소년들은 보다 강한 유대감을 느낀다고 한다. 상호작용이 빈번해질수록 유대감은 강해진다. 솔직히 소셜 미디어는 부모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양질의 시간은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항상 바쁘고 신경 써야 할 게 너무 많은 현대사회 가족들에게는 ‘좋아요’ 공유 같은 작은 것조차 의미를 지닐 수 있다.

# 초긴급! 아는게 힘이다!

하나님께서 기적 베풀어주시길 기도할 때!  
4월 28일, 미국의 영적 운명 바꾸어 놓을 수 있다!

미국 연방 대법원(U.S. Supreme Court)은 4월 28일 미 전역에 “동성애 결혼 합법화” 여부에 대한 매우 중요한 공청회(hearing)를 갖는다.

이번에 있을 찬반의 뜨거운 논쟁(hearing)을 통해서 돌아오는 6월에 있을 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마지막 결정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즉, “동성결혼을 미국 전국적으로 합법화 할지 아니면 지금처럼 각 주(State)의 법정에 맡겨지게 될지”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최종결정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4월 28일에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있는 공청회에서 있을 찬반 논쟁은 미국 역사 속에서 또 다른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매우 뜨거운 토론과 논쟁이 될 것이다. 공청회에 혹시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찬반 대표들뿐 아니라, 의견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많이 동참하고, 자신들의 찬반 의견들을 많이 내놓을수록 판사들이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공청회(Hearing)”이니 만큼 판사들은 시민들의 의견과 반응을 무시할 수 없기에 그 법정 안에서 어떤 자리가 오고가는지도 중요한 것이다. 워싱턴에서 사는 한인들도 이 공청회에 많이 참석하기를 권면한다.

이번에, 가정사역에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Focus On the Family의 James Dobson 또한, 이번 “동성결혼 합법화”가 미국전역의 법안이 되지 못하도록 모든 교회들에게 긴급 연락을 하고 있으며, 교회들이 이 “정치 아닌 정치적 사안”에 선한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할 것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다.

그와 함께, 미국교회 목사들은 4월 26일 주일 동일하게 “동성결혼 합법화”가 왜 안되는지, 성경적으로만 위배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들에게 얼마나 해로운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도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서는 안 된다는 이유들을 설교했다. 한인교회 목회자들과 교역자들도 같은 권면을 드리고 싶다. 동성애자들을 사랑해야 한다. 사랑한다면 또한 잘못된 것을 알리는 용기도 필요하다.

미국에서 현재 총 37개 주에 동성결혼이 합법화 됐지만, 2015년에 통과된 알라바마와 플로리다를 다 합쳐도 사실상 시민들이 투표해 그들이 원해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곳은 겨우 3주(States) 밖에 안된다는 사실이다. 나머지 주들은 모두 자유주의 민주당과 오바마정부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법정(Court)들과 주정부의회(State Legislatures)에서 일방적으로 통과 시킨 것이다.

**(7면에서 계속)**

안디옥교회가 기도와 같이 척추와 같았던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기 전에 분명 인간적인 생각도 들었을 것이다. 사실 능력있는 지도자였던 그들의 빈자리가 엄청나게 컸을 것이라 생각된다. 안디옥과 주위 도시의 복음화를 핑계 삼아 그들을 가지 못하게 하자는 의견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안디옥교회는 두 사람을 파송하기로 결정하였다. 무엇이 그들에게 이토록 중요한 결정을 하게 한 것일까? 안디옥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민감하게 느낀 것이다. 그들이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두 사람을 보내어 복음전파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 명령을 받은 후 다시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그 결과, 아무런 말도 없이 두 사람을 안수하여 선교사로 보내게 되었다.

안디옥교회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였다. 기도는 그들의 가슴속에 복음의

열정이 꺼지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사도행전의 후반부는 바울의 사역이 얼마나 활발하였는가를 우리에게 전해준다. 그는 복음이 소개되지 않은 영적으로 황폐한 지역에 교회를 세웠다. 그가 가는 길마다 온갖 고난과 핍박이 그를 방해하였다. 매 순간 영적전쟁을 치러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풍성한 이방선교의 열매를 맺었다. 소아시아와 유럽에 교회를 세운 후에 로마에까지 복음을 들고 가게 되었다.

무엇이 바울에게 그토록 강렬한 복음 전파의 열정을 지니게 하였을까? 안디옥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이다. 그들은 선교를 파송한 것으로 자신들의 임무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보내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로 함께 사역에 임한 것이다. 복음의 열정을 볼 때우리는 그들에게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이메일:covenantcho@yahoo.com

**(15면에서 계속)**

아내교실이나 사모교실에서 첫째 날 자기 소개하는 시간에도 반드시 “나는 00의 아내 00입니다”라고 소개할 것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갈비뼈로 아내를 만드신 목적을 강조시켜주며 소속감이 주는 안락감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식물인간이라 해도 목숨이 붙어 있는 남편이 곁에 있으면 그는 더 이상 과부라는 말은 듣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아무리 무능한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들의 출처임을 귀히 여기고 존경할 때 부부를 만드신 하나님이 흐뭇해하실 줄 믿습니다. 잘나고 유능한 남편, 존경하는 아내들보다 도저히 존경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남편의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존경하는 아내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감동하시어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메일:hwangsunwon@gmail.com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열왕기상 8:28

64<sup>TH</sup> ANNUAL OBSERVANCE  
**NATIONAL DAY OF PRAYER**  
국가를 위한 기도의 날  
**연합기도회**  
2015년 5월 7일 목요일

장소: 은혜한인교회  
시간: 저녁 7시 30분

은혜한인교회: 150 S. Brookhurst St., Fullerton, CA 92833  
문의처: (323) 933-4055, (714) 446-6200

주최: OC 한인목사회 · OC 원로목사회 · OC 여성목사회 · OC 평신도연합회 · OC 장로협의회 · 미스비철기도회  
남가주 청년네트워크 · KCCC · 미주성서화운동본부 · CMF · Fire Crusade · HYM · Jesusholic Movement  
주관: JAMA, OC 기독교교회협의회, 미주기독교총연합회



1세대와 2세대 함께모이며 모든 순서가 동시통역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Lord, Hear Our Cry**

www.NationalDayofPrayer.org

